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Sino-graphic Orthography Applied in Silla and Baekje Writing Tablets

저자 (Authors)	李丞宰 Lee, Seung-jae
출처 (Source)	진단학보 , (117), 2013.4, 169-213 (45 pages) THE CHIN-TAN HAKPO , (117), 2013.4, 169-213 (45 pages)
발행처 (Publisher)	진단학회 The Chin-Tan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2162479
APA Style	李丞宰 (2013).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진단학보, (117), 169-21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4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李 丞 宰

(서울대)

〈目 次〉

I. 머리말	III. 백제목간의 표기법
II. 신라목간의 표기법	IV. 마무리

〈국문요약〉

이 글은 木簡資料를 중심으로 신라의 표기법과 백제의 표기법을 각각 정리한 다음, 이들을 서로 대비하여 그 異同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신라의 금석문과 고문서 등의 기존 자료 중에서 (A) 한국어 어순에 따라 표기하고 (B) 한국어 문법 형태를 드러내어 표기한 최초의 자료는 戊戌塙作碑(578년)이다. 그런데 신라목간까지 포함하여 기술하게 되면, 그 최초의 예가 6세기 중엽의 함안 성산산성 221호¹⁾ 목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목간은 (A)와 (B)뿐만 아니라 (C) 訓主音從과 末音添記의 표기법까지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最古의 한국어 자료이자, 最高級 이두 자료이다.

신라목간에서는 6세기 중엽의 자료에서 8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법이 두루 적용되었다.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 ‘文尸[*글]’(4회), ‘蒜尸[*마늘]’, ‘糸利[*시리]’, ‘四リ[*너리]’, ‘彡利[*터리]’, ‘益丁[*더덩]’, ‘丨彡[*다슴]’ 등을 찾을 수 있고, 하남 이성산성, 경주 월성해자, 경주 박물관터, 경주 안압지 등의 목간에서 ‘大舍[*한사]’(3회), ‘赤居[*블거]’, ‘有史[*이시]’, ‘三𠂔[*사듭]’, ‘一²⁾𠂔[*ㅎ듭]’, ‘助史[*맛]’(6회) 등을 찾을 수 있다. 신라목간 자료에서 적어도 13개의 훈주음종 표기를 찾아낸 것이다. 여기에서 훈주음종 표기가 신라의 보편적 표기법이었고, 6세기 중엽에 이미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백제목간에서는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법을 찾을 수 없다. 신라목간에서 말음첨기자로 활용되었던 ‘只, 尸, 乙, 𠂔, 叱’와 음차자로 사용되었던 ‘居, 伊, 史, 舍, 知’ 등이 백제목간에서는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이 글자들이 이용된 『三國史記』地理誌의 백제 지명 표기가 통일신라 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백제에서는 단어를 표기할 때에 훈주음종과 말음

* 이 논문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결과의 일부이다(NRF-2011-342-A00014).

1) 文化財廳·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2011)의 『韓國 木簡字典』에서 기존의 목간에 일련번호를 새로 붙인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일련번호를 따른다.

침기의 표기법 대신에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과 훈차자 위주의 표기법을 적용했던 것 같다.

백제의 문장 표기에서는 (A) 한국어 어순이 분명히 확인되지만 (B) 한국어 문법 형태 표기는 ‘之, 也, 中, 以, 者’ 등으로 한정된다. 이들은 초기의 신라 이두 자료에서 발견되는 글자들과 일치한다. 그런데 백제 자료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읽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것도 백제목간과 신라목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표기법, 신라, 백제, 목간, 이두, 향찰, 한국어 어순, 한국어 문법 형태, 한국 고유어, 훈주 음중(訓主音從), 말음첨기(末音添記)

I. 머리말

이 글은 木簡資料를 중심으로 신라의 표기법과 백제의 표기법을 각각 정리한 다음, 이들을 서로 대비하여 그 異同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기록된 백제의 지명, 인명, 관명 등을 제외하면 백제어 자료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고유명사도 사실은 백제 당시의 표기라고 하기가 어렵다. 『삼국사기』 지리지 권제35와 권제37의 백제 지명도 사실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 약 100년이 지나서 신라 경덕왕 때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차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백제 지명 표기가 멸망 이전의 백제 표기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일까? 삼국 통일 이후의 신라 표기법을 따른 것일까?” 이 문제는 고대의 언어자료를 연구할 때에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백제의 실물 언어 자료가 거의 전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 기초적인 문제조차도 제기된 바가 없다.

이에 반하여, 80점²⁾ 가까이 출토된 백제목간은 백제의 표기법을 여실히 보여준다. 백제목간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목간 자료는 고대의 일차 자료이므로 기록 당시의 표기법과 언어를 그대로 전해 주기 때문이다. 출토된 양도 많지 않고 아직 판독되지 않은 글자도 적지 않아서 백제의 표기법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 글에서 백제목간의 표기법을 굳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백제목간의 국어학적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주로 이용해 왔던 고대어 자료에는 각종의 금석문, 고문서, 향가 등이 두루 포

2) 최근에 출토된 백제목간을 포함하면 80점이 넘는다.

팔되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신라의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신라의 표기법을 정리한 다음, 이것을 신라목간의 표기법과 대비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목간의 표기법이 기존의 고대 신라어 자료에 적용된 표기법과 다르지 않음을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서 신라목간의 표기법과 백제목간의 표기법을 대비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할 것이다. 신라의 표기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흔히 訓主音從의 원리와 末音添記를 드는데(金完鎭 1980), 이들이 백제의 표기법에도 적용되었을까?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목간에서는 단어를 音借字 爲主로 표기했으므로, 訓借字를 이용한 훈주음종의 예는 찾을 수 없다. 말음 첨기의 예도 찾기가 어렵다. 이 점을 중시하여 신라와 백제의 표기법이 서로 달랐음을 논증할 것이다.

II. 신라목간의 표기법

고대의 표기법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A) 문장은 한국어 어순에 따라 표기한다.
- (B) 문장은 한국어의 문법 형태를 드러내어 표기한다.
- (C) 한국어 단어는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원리로 표기한다.

(A)는 한국어의 어순과 중국 한어의 어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정한 표기 원리이다. 이 원리를 위반한 것은 한국어 문장 자료에서 배제한다. 광개토태왕비의 碑文은 거의 대부분 중국 한어의 어순을 따랐으므로 한국어 문장 표기의 예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세기 중엽의 瑞鳳塚銀合杆과 平壤城壁刻字도 마찬가지이다.

- (1) 가. 延壽元年 太歲在卯三月中 太王敬造合杆 用三斤六兩 (瑞鳳塚銀合杆, 451년)
나. 丙戌十二月中 漢城下後口 小兒文達 節 自此 西北行 涉之 (平壤城壁刻字, 446년? 506년?)

‘三月中’과 ‘十二月中’의 ‘中’이 처격조사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1나)의 ‘涉之’의 ‘之’가 문장 종결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1)을 이두문의 일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李基文 1981). 그러나 이보다 시기가 이른 중국의 목간에서도 이러한 예가 적지 않게 발견되므로 이들의 ‘中’과 ‘之’를 한국에 고유한 표기가 아니라 중국 한어의 표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金秉駿 2009). ‘中’과 ‘之’의 용법에 대해서는 이처럼 이견이 있지만, (1가)의 ‘用三斤六兩’과 (1나)의 ‘自此’가 한국어 어순이 아니라 중국 한어의 어순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전혀 없다. 이것을 강조하면 (1)의 예들은 (A)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 된다.

6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浦項中城里新羅碑(501년), 迎日冷水里新羅碑(503년), 蔚珍鳳坪里新羅碑(524년), 永川菁堤碑丙辰銘(536년), 丹陽新羅赤城碑(545년?, 551년?) 등과, 6세기 3/4분기에 세워진 신라 진흥왕의 북한산순수비(555년), 창녕순수비(561년), 황초령순수비(568년), 마운령순수비(568년) 등에서도 한국어 어순에 따라 비문이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 어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4/4분기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大邱戊戌塢作碑(578년)와 慶州南山新城碑(591년)를 들 수 있다.

(2) 戊戌塢作碑(578년)의 텍스트 분석 및 해독

가. 完工記：戊戌年 四月 朔十四日 另冬里村 高□塢 作 記之

무술년 4월 14일, 영동리촌(에) 高□ 둑(을) 지어 기록한다.

나. 參與者：此 成在 □□者 都唯那 寶藏 □□□ 都唯那 慧藏 阿尺干 … 另冬里村 沙木乙 一

伐 玠得所利村 也得失利 一伐 玠伊叱木利 一尺 伊助只 彼日

이(를) 이루신 □□는 都唯那 寶藏 … 伊助只 彼日(이고)

塢大：此 塢 大 廣卅步 高五步四尺 長五十步

이 둑(의) 크기(는) 너비 25보, 높이 5보 4자, 길이 50보(이며)

人夫數：此 作 起數者 三百十二人 功夫如

이(를) 지은 인원은 312인(의) 일꾼이다.

다. 完工日：十三日 了作 事之

13일(에) 다(완료하여) 지은 일이다.

라. 文作人：文 作 人 壹利兮 一尺

글 지은 사람(은) 壹利兮 一尺

(3) 慶州南山新城碑(591년)의 해독

辛亥年二月廿六日 南山新城 作 節 如法以 作 後 三年 崩破者 罪 教事 爲聞教令 誓 事之

신해년 2월 26일, 남산신성(을) 지을 때(에) 법대로 지은 뒤 3년(안에) 무너지면 죄 내리실

일 爲聞教令³⁾ 맹세하는 일이다

(2)의 ‘高□塢 作’, ‘此 成在 □□者’, ‘此 作 起數者’, ‘文 作 人’ 등과 (3)의 ‘南山新城 作 節’, ‘作 後 三年 崩破者’ 등은 한국어 어순임이 분명하다. 무술오작비는 578년에, 남산신성비는 591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편년 추정에 따르면 신라 금석문에서 한국어 어순에 따라 문장을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4/4분기의 일이다. 壬申誓記石도 한국어

3)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어순으로 기록된 대표적인 자료이지만 이것은 편년 추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⁴⁾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어 어순으로 작성된 문장의 초기 예로서 무술오작비와 남산신성비의 두 비문만을 들어 둔다.

그런데 이 두 비문에서는 (B)의 표기 원리도 확인된다. (2나)의 끝에 온 ‘功夫如’의 ‘如’는 문법 형태의 일종인 단락 종결사 ‘-*다’를 표기한 것임이 분명하다(李丞宰 2008나). 널리 알려져 있듯이, 훈차자로 사용된 ‘如’는 고유어 어간 ‘*다흐-’의 ‘*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2가), (2다), (3)의 끝에 온 종결사 ‘-’도 고유어의 문법 형태 ‘-*다’를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로, 단락이 끝나는 자리에 온다는 점에서 ‘如’와 ‘-’는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 둘째로, 이 용법의 ‘如’와 ‘-’가 동일 자료에서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예컨대 무술오작비와 8세기 중엽의 자료인 華嚴經寫經造成記에서 ‘如’와 ‘-’가 서로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如’와 ‘-’가 한국어의 문법 형태 ‘-*다’를 표기한 것은 분명하다. 한편, (2나)의 처음에 온 ‘此 成在 □□者’에도 문법 형태가 표기되었다. 이곳의 ‘在’는 석독구결의 ‘*7[견]’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존경법 선어말어미 ‘-*거-’와 동명사어미 ‘-*ㄴ’의 결합체를 표기하고, ‘者’는 주제 보조사 ‘-*은/는’에 대응한다(李丞宰 2001). (3)의 ‘如法以’에 사용된 ‘以’는 문법 형태 ‘-*로’에 대응하고(安秉禧 1987: 1025), ‘崩破者’의 ‘者’는 조건·가정의 ‘-*면’에 대응한다(南豐鉉 1975). 여기에서 거론한 것들이 모두 문법 형태의 일종임이 분명하므로, 무술오작비와 남산신성비의 비문은 (A)의 한국어 어순을 따르면서 동시에 (B)의 한국어 문법 형태를 드러내어 표기한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두 자료에서는 (C)의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눈에 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술오작비의 편년이 과연 578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在’의 용례와 단락 종결사로 사용된 ‘如’의 용례가 주로 8세기 자료에 나타난다는 국어학적 논거를 들어 李丞宰(2001, 2008나)에서는 무술오작비의 편년을 698년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 추정은 몇 가지 문제를 미처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삼국통일 이후에는 신라의 지방관에게도 京位를 부여함으로써, 무술오작비에 나오는 外位 관등명 ‘阿尺干, 一伐, 一尺, 彼日’ 등이 674년에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 비문에 이 관등명이 나오므로 이 비문의 戊戌年은 578년이나 638년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다 이 비문의 서풍이 南北朝 시대의 隸書風을 띠는 점을 덧붙인다면 무술오작비의 편년은 638년보다는 578년일 가능성이 더

4) 흔히 612년으로 추정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詩經』, 『尙書』, 『禮記』, 『左傳』(또는 春秋傳) 등의 儒學書를 612년 이전에 이미 교육하였다는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키진다. 예서의 서풍은 6세기 말엽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개 신라의 금석문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고대사를 기술해 왔다. 신라의 목간 자료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면 무술오작비의 편년을 578년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慶州月城塚子에서 출토된 목간은 기존 금석문 자료의 한계를 보여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 慶州月城塚子 2호 목간의 해독

1면 : [大鳥知郎足下可行白 |]

大鳥知郎 足下(께) 可行(이) 사릅니다.

2면 :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尔]

經에 들어 쓸 생각(으로) 白不雖⁵⁾ 종이 열두 마(를) 사겠습니다.

3면 : [牒垂賜教在之 後事者命盡]

牒(을) 내려 주신 教(가) 있습니다. 뒷일은 명령(대로) 다하겠습니다.

4면 : [使內]

(명령대로) 함(부림).

(5) 慶州月城塚子 20호 목간의 해독

1면 : [<第八巷 第卅三大 麻新立在節草辛 /]

여덟째 거리(는) 스물셋째 大舍(인) 麻新(이) 세우신 (것이다.) 때(는) 풀(이) 드문 (때다.)

(6) 慶州月城塚子 4호 목간의 해독

1면 : [■■■■ 一伐 ■使曰生耶死耶]

… 一伐 ■使(가) 말하기를 “삶이나 죽음이나”

(4)는 문서목간의 일종인데, ‘買白不雖紙一二尔’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가 한국어 어순으로 작성되었고 1면 끝에 온 ‘|’는 ‘*다’로 읽는다(鄭在永 2008). 이 ‘|’는 口訣字 ‘| [다]’와 같은 것으로서 그 字源은 ‘如’이고 단락 종결사 ‘*다’에 해당한다(李丞宰 2011가). 2면의 ‘中’은 처격조사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고(金永旭 2010), 3면의 ‘者’는 주제 보조사 ‘-*은/는’에 해당한다. (5)도 한국어 어순을 따르고, 이곳의 ‘立在’에 사용된 ‘在’는 존경법 선어말어미 ‘-*겨-’에 동명사어미 ‘-*ㄴ/은’이 통합된 형태를 표기한다. (6)은 문장이 짧아서 한국어 어순인지 중국 한어의 어순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生耶死耶’의 ‘耶’는 명사구 병렬의 기능을 가지는 석독구결의 ‘-ᄃ[여]’에 해당하거나, ‘耶’를 ‘那’로 관독할 경우에는 ‘那’가 선택 또는 열거의 의미를 가지는 문법 형태 ‘-ㄴ[나]’에 해당할 것이다(李丞宰 2009). 그렇다면 慶州月城塚子 목간에서는 (A)의 한국어 어순과 (B)의 한국어 문법 형태가 두루 확인된다고

5) 이 부분의 해독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말할 수 있다.

월성해자에서는 31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발굴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서 각각의 목간이 어느 지층에서 수습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7세기 전반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부의 학자는 제작 시기가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지만 서풍으로 보면 월성해자 목간에서는 남북조 시대의 예서풍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부터 존재했던 자연적인 垓字를 문무왕 때에 개축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목간은 이 개축 이전의 자연 연못 형 해자에서 출토되었으므로 월성해자 목간의 제작 시기는 문무왕 이전 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중시하여 이 글에서도 7세기 전반기 제작설을 따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7세기 전반기의 월성해자 목간과 6세기 4/4분기의 무술오작비 및 남산신성비의 표기법이 서로 공통되고 시간적으로도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즉, (A)와 (B)의 표기법이 이들 자료에 두루 적용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면 무술오작비의 편년을 578년으로 잡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술오작비의 '-在'는 (5)의 '立在'의 '-在'로 이어지고, 무술오작비의 단락 종결사 '-如'는 (4)의 '白 |'의 '- |'로 이어진다. 이 국어학적 연속성을 중시하면 (A)와 (B)의 표기법이 6세기 4/4분기부터 적용되었다고 확신하게 된다.

7세기 초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河南二城山城 목간도 당연히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성산성 목간은 판독이 확실하지 않아서 한국어 어순인지 중국 한어의 어순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성산성 목간에는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대개는 후대의 구결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⁶⁾ 그러나 이 판독이 확실한 것일지 필자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성산성 목간에 한국어 어순이 적용되었는지, 한국어 문법 형태가 기록되었는지 등의 여부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咸安城山山城 목간은 6세기 중엽에 제작된 신라 最古의 목간이다(李成市 2000). 성산산성 목간에 과연 (A)의 한국어 어순에 따르고 (B)의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이 등장할까? 만약 등장한다면 이들은 기존의 금석문보다 이른 시기의 자료가 되므로 국어학적으로 아주 큰 가치를 가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산산성 목간에서도 한국어 어순과 한국어 문법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문장 표기는 주로 문서목간에서 찾을 수 있고, 4면 목간에 특히 문서 기록이 많다는 것

6) 아래의 (17)을 참고하기 바란다.

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의 함안 성산산성 221호와 223호 목간은 문서목간의 일종이면서 4면 목간이다.

(7) 咸安城山山城 221호 목간의 해독

1면 : [六月中孟馮成邦村主敬白之成行行之 X]

6월에 孟馮成邦 촌주가 삼가 사됩니다. “成 군대 제의를 이루러 갔습니다.

2면 : [兜來昏也爲六甌大城從人丁六十邑 X]

투구와 도 오고 저물녘에 成했습니다. 6백의 벽돌을 위하여 大城을 좇아서 성인 남자 육십

3면 : [| 多走在日來此成金有和 X]

다섯이 서둘러 가려는 날에, 와서 이 成金有和가

4면 : [卒日始之人此人鳴磚藏置不行遣乙白 X]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고 벽돌로 감추어 두느라고 못 갔음”을 사됩니다.

성산산성 221호 목간은 총 68자가 기록되었을 정도로 분량이 많고, 기록 내용의 요지도 파악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목간이다. 李丞宰(2013)에서 이 목간에 대해 논의한 바 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기로 한다. 6월에 어느 촌주가 두 가지를 삼가 사되었다. 첫째는 군대의 제의에 참석했음을 보고했고, 둘째는 인력을 동원하려고 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동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음을 보고했다. 비유하면, 첫째는 軍役に 대한 보고이고 둘째는 勞役に 대한 보고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목간은 ‘村主’가 상급기관에 올린 전형적인 행정문서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목간의 내용이 대부분 한국어 어순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大城從’ (큰 성을 좇아서), ‘走在日’(서둘러 가는 날), ‘卒日始之’(다한 날이 비롯되었다), ‘藏置’(감추어 두려고), ‘不行遣乙白’(못 갔음을 사됩니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한어의 어순을 채용한 것은 ‘爲六甌’(6백의 벽돌을 위하여)밖에 없다. 이처럼 한어 어순이 부분적으로 섞이는 것은 경주 남산신성비의 ‘爲聞教令’에서도 확인되므로 낯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라목간에서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부터 즉 6세기 중엽부터 한국어 어순에 따라 문장을 작성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목간에는 한국어의 문법 형태도 많이 표기되었다. ‘六月中’의 ‘中’은 한국어의 처격조사에 대응한다. ‘敬白之, 成行行之, 卒日始之’의 ‘之’는 단락 종결사에 해당하고 2면에 온 ‘成也’의 ‘也’도 이 부류에 든다. 이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走在日’의 ‘在’, ‘不行遣乙’의 ‘遣’과 ‘乙’, ‘人此人’의 ‘此’는 한국어의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이 분명하다. ‘在’와

경법 선어말어미와 동명사어미의 결합체인 '-在'와 단락 종결사 '-如'가 나오는데, 이들 문법 형태는 주로 8세기 자료에 처음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문법 형태가 7세기 전반기의 경주 월성해자 목간뿐만 아니라 6세기 중엽의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문의 제작 시기를 578년이라 하여도 국어사적으로 전혀 어긋날 것이 없다. 이러한 수정이 가능해진 것은 월성해자나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신라목간 덕택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C)의 표기법 즉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원리가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C)는 향가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설정되었다(金完鎭 1980). (A)와 (B)의 표기법과 더불어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원리까지 준수하여 표기한 대표적인 자료가 향가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하는 향가는 모두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다. 이 설화를 통하여 노래가 불려진 시기를 추론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신라 眞平王(재위 579~632년) 때의 노래인 薯童謠와 擘星歌가 가장 이르다. 서동요는 서동이 백제 武王(재위 600~641년)으로 즉위하기 이전에 불린 동요이므로 6세기 4/4분기의 노래이다. 擘星歌는 7세기 1/4분기의 노래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9)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薯童謠와 擘星歌에 훈주음종의 표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훈주음종의 표기는 6세기 4/4분기와 7세기 1/4분기에 이미 적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9) 薯童謠와 擘星歌의 훈주음종 표기

- 가. *ㄱ - 密只 '그스~그스' (서동요)
 나. *ㄴ - 道尸 '깊' (이하 혜성가)
 다. *ㄹ - 岳音 '오름'
 라. *ㅅ - 城叱 'жат', 有叱如 '있다', 有叱故 '있고'
 마. *리 - 舊理 '녀리', 倭理 '여리', 星利 '벼리'
 바. *아 - 望良古(2회) '브라고'
 사. *년 - 白反也 '슬년여~슬뵈여'

그런데 (9)와 같은 훈주음종 표기가 신라 眞平王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성립한다. 서동요는 동요의 일종이고 혜성가는 花郎徒와 관련된 노래이므로, 처음에는 口傳되다가 後代에 와서야 문자화되어 정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향가가 1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이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훈주음종의 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다.

(10) 華嚴經寫經造成記의 훈주음종 표기

經 寫 時 中 並 淳 淨 爲 內 新 淨 衣 悠 水 衣 臂 衣 冠 天 冠 等 莊 嚴 令 只 者 二 青 衣 童 子 灌 頂 針 捧 弥 (4-5행)

더군다나 기록의 절대연도가 분명한 이두 자료를 두루 검토해 보더라도 훈주음종이 적용된 표기는 (10)의 ‘令只者’을 제외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0세기까지의 이두 자료에서 훈주음종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할 만한 자료는 이것밖에 없다.⁸⁾ ‘令只者’은 사역동사 어간 ‘*시기-’ 또는 ‘*ㅎ기-’을 표기한 것이고, 이곳의 ‘只’는 사역동사의 말음 ‘*기’를 첨기한 것이다. 華嚴經寫經造成記는 755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두 자료에서는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가 8세기 중엽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향찰을 기준으로 하면 6세기 4/4분기에, 이두를 기준으로 하면 8세기 중엽에 훈주음종의 표기가 시작된다는 시간적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두 가지 방안이 떠오른다. 첫째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향찰 표기가 후대에 (예컨대 8세기 중엽에) 정착했다고 보는 방안이고, 둘째는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법이 향찰에만 적용되고 이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방안이다.

이 문제는 향찰과 이두 표기가 가지는 특수성을 논의할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라목간 자료를 포괄하여 국어사를 기술하게 되면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전락한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신라목간 자료에서는 6세기 중엽에 이미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어사적 핵심이요, 정곡을 찌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 결론에 따르면, 신라 眞平王 때의 서동요와 혜성가에서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원리에 맞춰 표기한 것을 그대로 믿어도 된다. 나아가서, 이두에서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도 없다. 목간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이두 표기인데, 목간에 훈주음종과 말음첨기를 준수한 표기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먼저, 6세기 중엽의 자료인 咸安城山山城 목간에서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 예를 찾아보기로 한다. (11)의 네 자료에서 人名 표기의 ‘文尸’이 공통된다. 이곳의 ‘文’을 훈독하고 ‘尸’를 음독하면 15세기의 ‘글’이 된다(李丞宰 2009).⁹⁾ 이 해독은 당연히 ‘文’이 인명 표기에 쓰인 訓借字이고 ‘尸’이 음절말의 ‘ㄴ’을 표기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8) 11세기에 들어서면 이두에서도 훈주음종의 표기가 많아진다.

9) 『삼국사기』 지리지 권37의 ‘文峴縣一云斤尸波兮’도 참고가 된다.

(11) '文尸' '*ㄹ'

- 가. 『威安城山山城 102-1』 : [陽 3 村文尸只稗 ×]
 나. 『威安城山山城 148-1』 : [及伐城文尸伊稗石 ×]
 다. 『威安城山山城 149-1』 : [及伐城文尸伊急伐尺稗石 ×]
 라. 『威安城山山城 214-1』 : [及伐城文尸■稗石× >]

이처럼 '文尸'을 훈주음중 표기로 이해할 때에는 '尸'를 음절말 자음 '*ㄹ'로 읽을 수 있으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향가에서 '尸'이 '*ㄹ' 발음을 첨기할 때에 자주 사용되었다고 하여 목간에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산산성 목간에서 '尸'이 음절말 자음 '*ㄹ'을 표기한 예가 또 발견된다.

(12) 『威安城山山城 80-1』 : [蒜尸子 >]

이 목간을 권仁翰(2009)이 '蒜尸子'로 판독한 바 있다. 이 판독에 따라 '蒜'과 '子'를 혼독하고 '尸'를 음독하면, '蒜尸子'는 15세기의 '마늘씨'에 대응한다. '蒜尸'과 '마늘'의 대응에서 '尸'이 음절말 자음 '*ㄹ'을 표기한 것임이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文尸'과 '蒜尸'의 두 예에서 공통적으로 '尸'이 음절말 자음 '*ㄹ'에 대응하는데, 이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논거로 삼아, 향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라목간에서도 '尸'이 音借字로 사용되었고 음절말 자음 '*ㄹ'을 표기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9마)에서 이미 예를 들었듯이, 향가에서는 다음절 단어의 마지막 음절 '*리'를 음차자 '理' 또는 '利'로 첨기한다. 그런데 6세기 중엽의 성산산성 목간에서도 말음첨기의 '利'가 사용되어 주목된다. (13)의 인명 표기 '日糸利'가 그것이다. 이곳의 '日'과 '糸'를 혼독하고 '利'를 음독하면 '日糸利'는 '*닐시리'가 된다. 즉, 이곳의 '糸利'에 15세기의 '실(絲)'이 대응하므로 고대 신라어 '*시리'를 재구할 수 있다(李丞宰 2009). 일찍이 金完鎭(1980)은 鄉歌의 '星利'(彗星歌)와 15세기의 '별(星)'의 대응을 논거로 삼아 고대 신라어 '*벼리'를 재구한 바 있다. '糸利'와 '星利'는 음절 구성이 CVCV라는 점에서 서로 같고, 여기에 적용되는 통시적 음운규칙과 聲調도 서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糸利'도 훈주음중의 원리에 따라 표기된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르면, 훈주음중과 말음첨기의 원리는 6세기 중엽의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 이미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 『咸安城山山城 158-2』 : [〈日糸利稗石 ㄱ〉]

그런데 ‘利’로 말음을 첨기한 예가 ‘糸利’ 하나밖에 없다면 아무래도 불안하다. 이것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14)의 ‘四ㄹ’은 아주 귀중하다. 이곳의 ‘ㄹ’은 後代의 口訣字 ‘ㄹ[리]’와 사실상 같다. 따라서 이 글자는 ‘利’에서 비롯된 韓國漢字일 것이고, ‘*리’로 읽을 수 있다.

(14) 『咸安城山山城 218-2』 : [… 并作前■酒四ㄹㄱ瓮]

훈주음종의 원리에 따라 ‘四ㄹ’의 ‘四’를 훈독하고 ‘ㄹ’을 음독하면 ‘*너리’가 된다. ‘四’의 15세기 훈은 ‘네~넝’이지만, 金星奎(1984)는 여러 음운론적 논거를 들어 數詞 ‘三’과 ‘四’의 고대어를 각각 ‘*서리~*서랑’와 ‘*너리~*너랑’로 재구한 바 있다. 이때의 재구형 ‘*너리’가 성산산성 목간에서 ‘四ㄹ’로 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四ㄹ’이 수사라는 점은 문맥으로도 확인된다. (14)는 “... 아울러 빛은 前■의¹⁰⁾ 술, 네 독”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四ㄹ’이 단위명사 ‘瓮’ 앞에 온 수사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독하면 ‘四ㄹ’은 (13)의 ‘糸利’와 더불어 훈주음종 표기의 훌륭한 예가 되고,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가 6세기 중엽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다음의 목간도 역시 함안 성산산성 목간인데, 역사학자들 중에는 (15)의 첫 글자를 ‘丁’으로 판독하여 사람이나 인부의 뜻으로 새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글자는 ‘丁’이 아니라 한국한자 ‘ㄱ’이다. 이 ‘ㄱ’이 ‘마’를 표기하는 데에 이용되어 온 한국한자라는 사실을 국어학자라면 대개 알고 있다. ‘마’의 음상을 가지는 것 중에는 부식이나 약재로 이용되는 ‘마(薯蕷, 山藥)’가 있다. 이 목간의 1면에 ‘콩’을 뜻하는 ‘太’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목간에 穀名이 표기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ㄱ’이 薯蕷나 山藥을 지칭하는 고유어 ‘*마’, 즉 15세기의 ‘땅’임이 확실하다.

(15) 『咸安城山山城 127-2』 : [〈 ㄱ 卍 二益丁四 村 〉]

문제는 그 뒤에 온 ‘益丁’이다. 이 목간에 곡명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益丁’도 곡명이나 식물명으로 해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益丁’이 15세기의 ‘더덕(蓼)’에¹¹⁾

10) 경주 안압지 39호 목간에 나오는 ‘前實柚酒’의 ‘前實柚’를 참고하기 바란다.

11) 『訓蒙字會』에서는 ‘蓼’에 대해 ‘더덕 습’이라 하고 ‘俗呼沙蓼山蓼又人蓼藥名 亦作蓼’이라는 주석을

대응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益’을 ‘더으- > 더ㅎ-’의 ‘더’로 혼독하고 ‘丁’을 ‘덩’으로 음독하면 ‘益丁’은 *더덩’으로 재구된다(李丞宰 2009). 이 *더덩’과 ‘더덕’의 음상 차이가 사뭇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멍(穴)’의 방언형에 ‘구덕, 구녁’이 있다는 점과 15세기의 ‘바당(底)’이 현대어에서 ‘바닥’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음상 차이는 그리 큰 것이 아니다. 또한 派生接尾辭 ‘-양/영’과 ‘-악/억’은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명사의 語基를 *더디’라 하고 여기에 파생접미사 ‘-*양/영’이 통합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기본형 *더디+영’에서 /i/ 모음 삭제 규칙이 적용되면 *더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덩’이 된다(李秉根 1976). 이처럼 음운론적 기술이 아주 자연스러우므로 古代의 어기 *더디’와 파생접미사 ‘-*영/양’을 재구할 수 있다. 이 재구에 따르면 ‘益丁’도 훈주음종 표기의 일례가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16)의 ‘ㄷ利’도 훈주음종의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ㄷ’은 ‘터럭 삼’으로 읽히는데, 이때의 ‘터럭’은 語基 ‘털(毛)’에 파생접미사 ‘-억’이 통합된 형태이다. 어기 ‘털’이 고대어 단계에서는 *터리’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ㄷ利’가 바로 이 *터리’를 표기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ㄷ利’의 ‘利’가 앞에서 논의한 ‘四利’의 ‘利’에 대응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6) 『威安城山山城 160-1』: [〈秋ㄷ利村 ㄷ〉]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ㄷ’이 음독자로 쓰인 예도 있어서 주목된다. 앞의 (7)에 인용한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의 2면과 3면에 걸쳐 수사 65가 ‘六十目² | ㄷ’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곳의 ‘| ㄷ’이 數詞 5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앞에 60을 가리키는 ‘六十目²’이 온다는 점에서 틀림없다. ‘| ㄷ’의 ‘|’는 구결자 ‘| [다]’와 같은 것으로서, ‘如’에서 비롯된 한국한자이다. ‘如’의 옛날 훈은 *다ㅎ-’이므로 ‘|’를 *다’로 혼독한다. 여기에 ‘ㄷ’을 음독하여 덧붙이면 ‘| ㄷ’은 *다슴’ 정도가 된다. 그런데 석독구결 자료인 『華嚴經疏』 卷第35에 수사 ‘五^ㄷ [*다슴]’과 ‘六^ㄷ [*여슴]’이 나오고 『瑜伽師地論』 卷第20에 ‘二^ㄷ [*이듬]’이 나온다(李丞宰 2011나: 30). 이들은 고유어 수사 어기에 접미사 ‘^ㄷ[음]’이 덧붙은 것이다. 목간의 ‘| ㄷ’과 석독구결의 ‘五^ㄷ’은 둘 다 *다슴’으로 읽히므로 독법이 서로 일치한다. 이 일치를 통하여 ‘| ㄷ’이 훈주음종의 일례임을 알 수 있다.

달았다.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의 2면 끝에 온 수사 ‘六十²⁾’은 무척 흥미로운 표기이다. 수사 ‘十’에 ‘²⁾’을 첨기한 것은 ‘六十’을 고유어 수사 ‘예순’ 계통으로 혼독하지 않고 한자음 계통인 ‘*륙십’으로 음독했음을 의미한다. 李丞宰(2011나)는 ‘²⁾’을 ‘²⁾’에서 비롯된 한국한자로 보아 ‘²⁾’이 음절말 자음 ‘*ㅂ’을 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六十²⁾’의 ‘²⁾’은 그 가치가 아주 크다. 또한, 현재의 경상도 방언에서는 수사 65를 ‘예순 다섯’으로 읽지 않고 ‘육십 다섯’으로 읽는데, 이 독법의 기원이 6세기 중엽의 신라목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 이 ‘六十²⁾’을 통하여 새로 드러났다. 이 점에서도 이 자료는 가치가 아주 크다.

그런데 ‘六十²⁾’을 훈주음종의 표기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훈주음종은 앞에 훈차자가 오고 그 뒤에 음차자가 덧붙는 표기법을 가리킨다. 이곳의 ‘²⁾’이 음차자로서 ‘六十’에 덧붙은 것은 맞지만, 앞에 온 ‘十’을 혼독하지 않고 음독했으므로 ‘十²⁾’은 훈주음종의 표기가 아니다. 이곳의 ‘²⁾’이 ‘*십’의 ‘*ㅂ’을 첨기한 것은 맞지만, 훈으로 읽는 글자의 발음을 표기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훈주음종이란 용어의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여 앞에 온 글자를 혼독할 때에만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 대신에 발음첨기라는 용어는 앞의 글자가 혼독자이든 음독자이든 관계없이 두루 적용한다.

지금까지 함안성산산성 목간에서 ‘文尸’, ‘蒜尸’, ‘糸利’, ‘四卍’, ‘益丁’, ‘彡利’, ‘丨彡’ 등 모두 7개의 훈주음종 표기를 찾아내었다.¹²⁾ 앞에 온 ‘文, 蒜, 糸, 四, 益, 彡, 丨’ 등은 모두 훈차자이고 뒤에 덧붙은 ‘尸, 利, 卍, 丁, 彡’ 등은 모두 음차자이다. 언뜻 보면 용례가 적은 듯 하나, 성산산성 목간의 전체 분량과 해독 가능한 단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 6세기 중엽의 함안 성산산성 목간부터 이미 훈주음종과 발음첨기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7세기 초엽의 하남 이성산성 목간과 7세기 전반기의 경주 월성해자 목간에서 발견되는 훈주음종 표기의 예를 들어본다. (17~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목간에는 신라의 外位 관등명 ‘大舍’ 또는 ‘大²⁾’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8세기 3/4분기의 자료인 (19)의 경주 안압지 3호 목간에서는 ‘韓舍’로 표기된다. ‘大舍’ 또는 ‘大²⁾’가 훈주음종의 표기인데 비하여 ‘韓舍’가 音借字 爲主의 표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흥미로운 것은 7세기 전반기

12) 다음의 ‘入尸’도 훈주음종의 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의 ‘尸’이 동사 어간 ‘*들-’의 ‘*ㄹ’을 표기한 것인지 동명사어미를 표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훈주음종의 예에서 제외했다.
『威安城山山城 43-1』: [陽村上入尸只 ㄱ]

까지 적용되었던 훈주음종의 표기가 8세기 3/4분기에는 음차자 위주의 표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흔히 음차자 위주의 표기가 훈주음종의 표기보다 시기적으로 앞설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것이 막연한 추정임을 이 예들은 잘 보여준다. 신라에서는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과 훈주음종의 표기법이 동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나올 것이다.

- (17) 「河南二城山城 4-1」: [大舍 六 3]
 (18) 가. 「慶州月城塚子 9-5」: [大舍 廿 等 敬 白 廚 典 列 先]
 나. 「慶州月城塚子 20-1」: [< 第八巷 第 廿 三 大 麻 新 立 在 節 草 辛 /]
 (19) 「慶州雁鴨池 3-1-1」: [\ 舍 舍 舍 舍 韓 舍 天 寶 十 一 載 壬 辰 十 一 月]

(20)의 경주 월성해자 8호 목간에는 여러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전후에 ‘-里’로 끝나는 지명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중간에 온 ‘赤居伐’도 지명이다. 이곳의 ‘赤居’는 15세기의 ‘블거’에 대응하므로 ‘赤’을 혼독하고 ‘居’를 음독했을 것이다.

- (20) 「慶州月城塚子 8-4」: [里 代 宿 赤 居 伐 麻 火 且 喙 仲 里 新 里 上 里 下 里]

목간에 기록된 신라 詩歌를 해독하면서 Lee(2013)은 (21)의 ‘有史音’가 석독구결의 ‘有七七’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有史音’의 ‘有史’는 훈주음종 표기의 예가 된다.

- (21) 「慶州博物館터 1-1」: [万 本 來 身 中 有 史 音 今日 三 時 爲 從 支]

고대어 數詞에는 ‘툼’이 통합된 것이 많다. 경주 안압지 목간에서도 ‘三툼’과 ‘一툼’이 등장하여 눈길을 끈다. (22가)의 ‘三툼’은 東門을 수비했던 문지기의 이름이므로, 한국어 수사를 인명으로 삼은 예가 된다. ‘三툼’을 ‘*새툼’ 또는 ‘*사툼’으로 읽으면, ‘三툼’도 훈주음종의 원리에 따른 표기가 된다.

- (22) 가. 「慶州雁鴨池 5-2=1」: [東 門 迺]
 나. 「慶州雁鴨池 41-1」: [己 禾 冊]
 「慶州雁鴨池 41-2」: [一 巳 衍 冊 六 龍]

(22나)의 ‘一[?]𠄎’은 뒷면의 첫 부분이므로 앞면의 마지막 글자 ‘𠄎’에 연결되는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 경주 안압지 41호 목간은 윗부분이 파손되었으므로 이 연결이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뒷면 상단의 왼쪽에는 목간 제작 당시에 나무의 상단부를 둥그렇게 마름질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그 오른쪽만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앞면의 끝 글자 ‘𠄎’에 뒷면의 첫 글자 ‘一[?]’이 직접 연결되고, 이 목간에 기록된 수사는 ‘𠄎一[?]𠄎’이 된다. 이곳의 ‘一[?]𠄎’을 ‘*흐듭’으로 읽으면¹³⁾ 이것도 훈주음종의 일례가 된다.

마지막으로, 경주안압지 목간에 기록된 ‘助史’도 훈주음종 표기의 일종이다. 李丞宰(2011가)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듯이, ‘助史’의 ‘助’는 한국한자의 일종으로서 ‘曄’와 뜻이 같다. 즉, ‘助’와 ‘曄’는 둘 다 훈이 ‘맛’이다. 이 ‘맛’의 ‘ㅅ’을 첨기하기 위하여 ‘史’가 덧붙은 것이다.

- (23) 가. 『慶州雁鴨池 2-2』 : [〈 ㄹ猪水助史這 3 肉瓮一入 1 〉]
- 나. 『慶州雁鴨池 7-2』 : [(ㄹ加火魚助史 3 |)]
- 다. 『慶州雁鴨池 26-2』 : [ㄹ辛酉猪助史邊]
- 라. 『慶州雁鴨池 25-1-2』 : [ㄹ日作 ㉠猪助史]
- 마. 『慶州雁鴨池 29-2』 : [(單助史 本言 1 1)]
- 바. 『慶州雁鴨池 36-1』 : [〈 三月 卅一日 作 獐助史邊 ㉠ 1 〉]

지금까지, 신라목간에 나오는 훈주음종 표기를 모두 들어 보았다. ‘文尸[*글]’(4회), ‘蒜尸[*마늘]’, ‘糸利[*시리]’, ‘四 ㉠[*너리]’, ‘彡利[*터리]’, ‘益丁[*더덩]’, ‘ 1 彡[*다습]’, ‘大舍[*한사]’(3회), ‘赤居[*블거]’, ‘有史[*이시]’, ‘三 𠄎[*사듭]’, ‘一[?]𠄎[*흐듭]’, ‘助史[*맛]’(6회) 등, 신라목간에서 모두 13개의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6세기 중엽의 함안 성산산성 목간, 7세기 초엽의 하남 이성산성 목간, 7세기 전반기의 경주 월성해자 목간, 8세기 전반기의 경주박물관터 목간, 8세기 3/4분기의 경주 안압지 목간에서 두루 발견된다. 이것은 6세기 중엽부터 8세기 후반기까지 훈주음종의 원리가 꾸준히 적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고 하여 신라목간에서 찾을 수 있는 훈주음종의 표기가 위의 13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훈주음종 표기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훈주음종의 원리를 가정할 수 있는 단어가 두어 개 더 있다.

- (24) 가. 『咸安城山山城 6-1』 : [甘文本波 ㉠村旦利村伊竹伊]

13) ‘三 𠄎’을 ‘*새듭’ 또는 ‘*사듭’으로 읽고 ‘一[?]𠄎’을 ‘*흐듭’으로 읽는 까닭은 李丞宰(2011나)를 참고하기 바란다.

- 나. 『咸安城山山城 14-1』 : [竹尸^ㄴ牟^ㄴ于支稗一 ×]
 다. 『咸安城山山城 66-1』 : [千○竹利 ㄴ]
 라. 『咸安城山山城 67-1』 : [ㄴ 千竹利 ×]
 마. 『咸安城山山城 208-2』 : [< ㄴ ㄴ 谷竹伊西比支負 × >]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는 ‘竹’의 바로 뒤에 항상 ‘利, 尸, 伊’ 등이 뒤따른다. 이것은 ‘竹’이 훈차자일 가능성과 그 훈의 마지막 음절이 ‘*리’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따르면 ‘竹’을 뜻하는 신라어가 ‘*다리’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다리’가 ‘竹利, 竹伊, 竹尸^ㄴ’의 세 가지로 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사 4의 재구형 ‘*너리~*너링’에서 ‘*ㄴ’이 탈락하여 15세기의 ‘네~넝’이 되듯이, ‘*다리’에서 ‘*ㄴ’이 탈락하여 15세기의 ‘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5세기의 ‘대’는 上聲이 아니라 去聲이다. 성조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竹利, 竹伊, 竹尸^ㄴ’가 훈주음종의 표기일 가능성만 열어 둔다.

- (25) 가. 『咸安城山山城 6-1』 : [甘文本波^ㄴ村旦利村伊竹伊]
 나. 『咸安城山山城 120-1』 : [< 鄒文村內旦利負 ×]
 다. 『咸安城山山城 179-1』 : [< 屈斯旦利今部牟者足 ㄴ]
 라. 『咸安城山山城 200-1』 : [麻旦^ㄴ元 ×]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ㄴ’ 바로 뒤에는 대개 ‘利’가 온다. (25가)의 ‘旦利村’은 지명이고 (25나)의 ‘內旦利’는 인명이므로 ‘旦利’를 일반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ㄴ’의 훈 중에서 ‘*리’로 끝나는 명사를 찾기가 어렵다. 굳이 찾는다면 元旦을 뜻하는 단어 ‘설’을 들 수 있다. 이 ‘설’의 15세기 성조가 마침 上聲이므로 신라어에서는 元旦이 ‘*서리’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에서는 ‘旦利’가 ‘*서리’를 표기한 것이 되므로 훈주음종의 원리에 잘 들어맞는다. 그런데 이때에는 목간의 ‘ㄴ’이 ‘아침’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元旦’의 뜻인가 하는 의문이 새로이 제기된다.

‘竹利’와 ‘旦利’를 각각 ‘*다리’와 ‘*서리’로 읽을 때의 문제나 의문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이들을 훈주음종 표기의 후보 자리에는 올릴 수 있다. 후보는 확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후보에 들 수 있는 것으로는 ‘仇利’가 대표적이다.

- (26) 가. 『咸安城山山城 156-1』 : [< 仇利伐 仇陀知一伐奴人 毛利支負 × >]
 나. 『咸安城山山城 133-1』 : [< 十^ㄴ ㄴ ㄴ 一伐奴人毛利支負 × >]

(26가)와 (26나)의 대응관계를 중시하면 ‘仇利’를 훈주음중 표기의 후보에 올릴 수 있다. 이 두 목간은 필사자가 동일인이라고 할 만큼 서체가 서로 일치하고 목간 제작 방법이 동일하며 목간에 기록된 내용도 거의 같다. 특히 ‘一伐奴人毛利支負’가 완전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곳의 인명 ‘毛利支’가 살던 곳 즉 주소도 동일해야 하므로, 맨 앞에 기록된 ‘仇利伐’과 ‘十[]’이 동일 지명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仇利’와 ‘十[]’가 동일 지명을 서로 다르게 표기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이 둘은 異表記 관계이다.

15세기의 數詞 ‘十’은 고유어로 上聲의 ‘열~열’이다. 15세기의 수사 ‘세~셋(三)’과 ‘네~넷(四)’이 신라어 *서리~*서렁’과 *너리~*너렁’으로 재구되듯이, 이 ‘열~열(十)’의 신라어로 *여리~*여렁’을 재구할 수 있다. 이처럼 재구하면 (26나)의 ‘十[]’는 *여리~*여렁’을 표기한 것이 된다. 그런데 (9마)에서 이미 거론했던 것처럼, 혜성가에 나오는 ‘倭理’의 재구형이 흥미롭게도 또한 *여리’이다. 목간의 ‘仇利’와 혜성가의 ‘倭理’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목간의 ‘仇利’도 *여리’로 읽을 수 있다. ‘仇’의 훈은 ‘원수’이다. 이 목간이 제작된 6세기 중엽은 신라가 승승장구하여 영토를 넓히던 때인데, 혹시 이때에 ‘倭’가 유독히 원수처럼 여겨졌던 것이 아닐까? ‘倭’가 원수의 대명사였다면 ‘仇’를 ‘倭’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가정에 따르면 ‘仇利’를 *여리’로 읽을 수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신라어 *여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수사 ‘十’의 의미이고 둘째는 ‘仇’ 또는 ‘倭’의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이 둘은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이 동음성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十’에서는 *여리’의 *|’ 모음이 탈락하여 ‘열~열’이 되고, ‘仇’와 ‘倭’에서는 *ㄹ’ 자음이 탈락하여 ‘예’가 되었다는 가정도 성립한다.

신라목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훈주음중 표기가 적으면 13개이고 많으면 16개가 된다. 신라목간에서 이처럼 많은 양의 훈주음중 표기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훈주음중과 말음첨기의 원리가 신라에서는 보편적인 표기 원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두루 종합하면 신라목간에서는 (A), (B), (C)의 표기 원리가 6세기 중엽부터 8세기 후반기까지 두루 적용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Ⅲ. 백제목간의 표기법

이제, 백제목간의 표기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백제목간이 출토되기 이전에는 백제의

문자 자료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고대의 표기법을 논의할 때에 백제와 신라의 표기를 가리지 않고, 신라의 표기법을 바로 고대 한국어의 표기법인 것처럼 기술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백제목간이 적잖이 발굴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기술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백제목간의 표기법을 정리할 때에도 앞에서 제시한 (A), (B), (C)의 표기 원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백제 표기법의 특징을 드러낼 때에는 (C)의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원리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백제목간과 신라목간은 여기에서 가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백제목간에 기록된 지명과 인명 90여 개를 모두 열거해 보면 (27~28)과 같다. 이 수량은 『삼국사기』 지리지 권제36에 기록된 백제 지명이 14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이들과 백제목간에 나오는 모든 借字를 중심으로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원리가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27) 백제목간의 지명 - 13개

漢城(능산 3), 竹山(능산 9), 眠席(능산 9), 毛羅(나주 3), 錫非頭(나주 3), 大禮村(나주 6), 弥首山(나주 6), 久川(나주 10), 栗岬城(관북 5), 契(관북 5), 邁羅城(궁남 1), 法利源(궁남 1)

(28) 백제목간의 인명 - 78개

疏加鹵(능산 3), 加(능산 4), 急明(능산 4), 靜腦(능산 4), 八(능산 4), 三貴(능산 5), 丑牟(능산 5), 至文(능산 5), 至夕(능산 5), 大貴(능산 5), 今母(능산 5), 安貴(능산 5), 欠夕(능산 5), 文(능산 5), 大聽成(능산 8), 智亮(능산 10), 華(능산 10), 慧暈(능산 11), 干爾(능산 13), 追存耳若(능산 13), 己(능산 16), 牟己兒(능산 23), 豬耳(능산 25), 牟氏(능산 25), 牟祿(능산 25), 化之(능산 28), 川(능산 28), 那(나주 3), 比高(나주 3), 墻人(나주 3), 戶智次(나주 3), 夜之徒(나주 3), 法戶芻次(나주 3), 烏胡留(나주 3), 麻進(나주 3), 高嵯支(나주 4), 好二西(나주 4), 行遠(나주 7), 行悅(나주 7), 行麻(나주 7), 漆道(나주 7), 分(나주 10), 至安(나주 12), 固淳多(쌍북280 1), 上夫(쌍북280 1), 佃目之(쌍북280 1), 佃麻那(쌍북280 1), 至(쌍북280 1), 翳利(쌍북280 1), 素麻(쌍북280 1), 今沙(쌍북280 1), 佃首行(쌍북280 1), 刀·邑佐(쌍북280 1), 那(쌍북102 2), 牟氏(쌍북현내 1), 寂信不(쌍북현내 1), 及酒(쌍북현내 1), 九(쌍북현내 1), 冥(쌍북현내 1), 吳加宋工(쌍북현내 1), 首²比(쌍북현내 3), 泉(쌍북현내 6), 漢谷(쌍북현내 8), 向(관북 1), 已達(궁남 1), 已斯口(궁남 1), 率比(쌍북), 岬或(관북 2), 堪波牟(구아 3), 得進(구아 5), 韓牟禮(구아 5), 眞(구아 6), 文(구아 8), 烏(구아 8), 雀磨(구아 8), 烏古滿(구아 8), 牟多(구아 8), 烏乎留(구아 8)

이 글에서는 앞에 온 글자가 훈차자이든 음차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말음을 덧붙여 표기하는 것을 말음첨기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훈주음종은 말음첨기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말음첨기는 크게 보면 음절말 자음을 첨기한 것과 다음절 단어의 마지막 음절을 첨기한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 訓主音從의 표기에서 말음첨기자로 사용된 글자를 신라목간에서 찾아보면 ‘利, 卍, 尸, 伊, 丁, 彡, 畚, 居, 史, 邑’ 등의 열 글자가 나온다. 훈주음종의 표기는 향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향가 표기에 사용된 말음첨기자는 ‘只, 隱, 尸, 乙, 音, 叱, 史, 知, 理, 里, 利, 呂, 烏, 次, 等, 冬, 萬, 惡, 反, 察, 寸, 未, 米, 波’ 등이다. 이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첨기자를 중심으로,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의 표기법을 대비해 본다.

(29) 신라목간의 ‘只’

阿足只(성산 15), 斯只(성산 18), 內只次(성산 37), 上入尸只(성산 43), 舌只(성산 51), 夫鄒只(성산 59), 毛利只(성산 100), 文尸只(성산 102), 居所只(성산 115), 仇只(성산 121), 豆只(성산 140), 豆留只(성산 146), 夫酒只(153), 須只(160), 牟只(성산 177), 伊只(성산 188), 蒲子只(이성 1)

신라목간에서는 첨기자 ‘只’의 용례가 아주 많지만, 백제목간에서는 ‘只’의 용례가 아예 없다. 따라서 백제목간에서는 ‘只’가 첨기자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30) 신라목간의 ‘尸’

比尸(성산 10), 竹尸(성산 14), 次尸智(성산 31), 比尸河(성산 39), 上入尸只(성산 43), 力尸(성산 61), 蒜尸子(성산 80), 文尸只(성산 102), 文尸伊(성산 148, 149), 於勞尸兮(성산 198), 文尸(성산 214), 古尸沙(성산 218)

신라목간에서는 ‘尸’의 용례가 아주 많다. 그런데 백제목간에서는 ‘尸’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아주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31) 신라목간의 ‘乙’

居琺尺乙支(성산 65), 乙(성산 193), 不行遣乙(성산 221), 乙勿(월성 12), 市乙(월성 13)

신라목간에는 ‘乙’의 용례가 다섯 번 나온다. 이것은 ‘尸’의 용례에 비하여 많은 편이 아니다. ‘居琺尺乙支’의 ‘乙支’는 ‘乙支文德’ 장군의 ‘乙支’와 같은 것일까?¹⁴⁾ 이 ‘乙支’의 ‘乙’이 말음첨기의 용법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不行遣乙’과 ‘乙勿’의 ‘乙’도 말음첨기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말음첨기의 용법으로 쓰인 신라목간의 예는 ‘乙’과 ‘市乙’

14) ‘居琺尺乙支’의 ‘乙支’가 ‘乙支文德’ 장군의 ‘乙支’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제목간에서는 ‘乙’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2) 신라목간의 ‘𠄎’

兮刀𠄎(성산 11), 𠄎兮支(성산 20, 41), 爾利𠄎(성산 25), 𠄎珎兮(성산 58, 58), 六十𠄎²(성산 221), |²沙𠄎月²(이성 6), 沙𠄎(월성 13), 三𠄎(안압지 5), 小𠄎(안압지 5), 卍—²𠄎(안압지 41)

(33) 백제목간의 ‘𠄎/𠄎’

刀、𠄎佐(부여 쌍북리280 1), 新台𠄎, 日古𠄎, 刀士𠄎, 以²如𠄎, 二²口𠄎, 今毛𠄎, 坐伽²第𠄎, 矣毛𠄎(이상 미륵사지 1),

신라목간에서는 ‘𠄎’이 사용되고 ‘𠄎’은 사용되지 않았다. 거꾸로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𠄎’이 보이지 않고 ‘𠄎’만 보인다. 이러한 상보적 분포는 ‘𠄎’이 ‘𠄎’에서 비롯된 한국한자 임을(李丞宰 2011나) 암시한다. ‘𠄎’은 신라의 성산산성, 이성산성, 월성해자, 안압지 등의 목간에서 두루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안압지 목간의 ‘三𠄎’과 ‘—²𠄎’이 훈주음종의 원리에 따라 표기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六十𠄎²’(성산산성 221호)과 ‘|²沙𠄎月²’(이성산성 6호)은 엄격한 의미에서 훈주음종 표기가 아니지만, 음절말 자음 *²h’을 표기하기 위해 첨기된 것이 분명하다. ‘六十𠄎²’과 ‘|²沙𠄎’이 각각 정확하게 *²h’과 *²h’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곳의 ‘𠄎’은 말음첨기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백제목간에서는 인명 표기 ‘刀、𠄎佐’(부여 쌍북리280 1)가 나온다. ‘𠄎’은 이곳의 ‘𠄎’과 궁극적으로는 같은 글자이므로 백제목간에 ‘𠄎/𠄎’의 예가 나온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刀、𠄎佐’의 ‘𠄎’은 말음첨기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앞에 오는 글자가 반복됨을 뜻하는 부호인 ‘、’가 ‘𠄎’의 앞에 왔으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益山 彌勒寺址 1호 목간에서는 이 ‘𠄎’이 고대 한국어 수사에 덧붙는 접미사 ‘-²h/음’을 표기한다. 그런데 이 미륵사지 목간을 신라목간으로 볼 것인가 백제목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7세기 말엽이나 8세기 초엽의 통일신라 때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이 목간을 신라목간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백제인의 후예가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백제목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李丞宰 2011나). 미륵사지 목간의 ‘𠄎’은 신라 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글자일 가능성이 크다(後述). ‘刀、𠄎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백제목간이 분명한 부여 쌍북리280의 1호 목간에서는 ‘𠄎’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순수한 백제목간에는 ‘𠄎’의 용례가 없는 셈이다.

(34) 신라목간의 ‘叱’

口叱世[](이성 2), [][]叱時四(월성 9), 馬叱下(안압지 5)

신라목간에서는 ‘叱’의 용례가 세 번 나타난다. ‘叱’의 용례가 의외로 적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口叱世[]’와 ‘馬叱下’는 인명 표기임이 확실하지만, ‘[][]叱’이 무엇을 표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백제목간에서는 ‘叱’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신라 향가에서는 음절말 위치의 ‘*ㅅ’을 표기하는 데에 ‘叱’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백제목간에서는 ‘叱’이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위에서 거론한 ‘只, 尸, 乙, 邑, 叱’ 등은 신라에서 ‘*ㄱ, *ㄴ, *ㄹ, *ㅅ’ 등의 음절말 자음을 말음첨기의 방법으로 표기할 때에 사용했던 글자이다. 여기에 음절말 자음 ‘*ㅁ’을 표기할 때에 이용되었던 ‘흙’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흙’도 백제목간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라목간에서도 ‘有史音[]’(慶州博物館터 1)를 제외하면 그 용례를 찾을 수가 없다. 향가에서는 ‘흙’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신라목간에서 ‘흙’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우연의 소치일 것이다. 그러나 백제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백제목간에서는 ‘只, 尸, 乙, 邑, 叱’ 등을 말음첨기의 방법으로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흙’도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백제에서는 체계적이고도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흙’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논의를 모두 종합하면, 음절말 자음의 표기를 위하여 글자를 덧붙이는 말음첨기법이 신라에는 있었지만 백제에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백제에 말음첨기법이 없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백제에 훈주음종의 표기법도 없었다는 뜻이 된다. 아래에서 이 결론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다.

(35) 신라목간의 ‘利’

仇利(성산 1, 13, 25, 26, 33, 34, 116, 143, 156, 178, 180, 203, 208, 안압지 9), 且利(성산 6), 居利支(성산 9, 44), 乞利(성산 13), []利兮(성산 17), 伊骨利(성산 21), 爾利知(성산 22), 爾利邑(성산 25), 伊骨利(성산 28), 卜利古支(성산 28), 智利知(성산 29), 豆亏利智(성산 29), 一古利(성산 31, 136, 139, 142, 150, 158, 216), 爾利牟[](성산 39), 弘[]沒利(성산 56), 勿利乃(성산 57), 竹利(성산 66, 67), 寬²利次(성산 75), 亏利沙(성산 85), 毛利只(성산 100), 勿利(성산 103), 倦益爾利(성산 103), []歆[]利(성산 106), 丙且利(성산 120), 丈[]利(성산 124), []利[](성산 126), 爾利[]爾(성산 129), 毛利支(성산 133, 156), 牟利之(성산 174), 殆利夫智(성산 136), 支烏利禮(성산 137), 癸[]利(성산 147), 日糸利(성산 158), 秋彡利(성산 160), 居利烏人(성산 166), []爾利(성산 174), 屈斯且利(성산 179), 勿利(성산 184)

(36) 백제목간의 ‘利’

翫利(부여 쌍북리280 1), 法利源(부여 궁남지 1)

용례가 60회에 이를 정도로 신라목간에서는 ‘利’가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백제목간에서는 인명 ‘翳利’와 지명 ‘法利源’의 단 두 곳에만 사용되었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신라인들이 ‘利’로 끝나는 고유명사를 선호한 데에 비하여 백제인들은 이러한 선호 의식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신라와 백제의 표기법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신라에서는 표기법의 일종인 말씀첨기가 생산적으로 적용되었지만, 백제에서는 이 말씀첨기 방식이 아예 없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7) 신라목간의 ‘居’

居利支(성산 9, 44), 居助支(성산 35), 居[](성산 63), 居玆尺乙支(성산 65), 夫知居兮(성산 72), 居須智(성산 73), 居所只(성산 115), 居利鳥人(성산 166), 赤居伐(월성 8)

(38) 신라목간의 ‘伊’

伊竹伊(성산 6), 鳥多伊伐支(성산 7, 108), 文尸伊(성산 148, 149), 弥伊[](성산 150), 小伊伐支(성산 171), 竹伊西比支(성산 208)

(39) 신라목간의 ‘史’

啓²史爾支(성산 74), 助史支(성산 179), 卒史(성산 198), 有史音[](경주박물관터 1), 助史(안압지 2, 7, 25, 26, 29, 36), 史[](안압지 6)

(40) 신라목간의 ‘畬’

大畬(이성 4, 월성 9, 안압지 3)

(41) 신라목간의 ‘知’

夫知居兮(성산 72), []蔦知支(성산 87), 知弥留(성산 118), []知(안압지 21)

위의 여러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라목간에서는 ‘居, 伊, 史, 畬, 知’ 등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백제목간에서는 이들의 용례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이 차이를 자연스럽게 기술하려면, 신라와 백제의 표기법이 서로 달랐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신라목간에서는 훈주음종의 원리와 말씀첨기법이 적용되었지만 백제목간에서는 이들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차이를 아주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너무 적은 양의 자료를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백제목간과 신라목간에 사용된 글자 수를 모두 헤아려 보았다. 백제목간에서는 대략 401개의 글자가 1068회 사용되었다. 반면에 신라목간에서는 496개의 글자가 2354회 사용되었다.¹⁵⁾ 전체 표기의 분량으로는 백제목간이

15) 이른바 論語木簡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동일 글자를 반복하여 翳書한 것은 계산에 넣었다. 백제목간과 신라목간을 합하여 한국 전체 목간에서 사용된 글자 수는 686개이다. 이것은 백제목간의 401개와 신라목간의 496개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것을 뺀 수치인데, 『韓國木簡字典』(2011)

신라목간의 45% 정도에 불과하지만 借字의 수만 따지면 백제목간의 차자 수는 신라목간의 81%에 이른다. 즉 백제목간에 사용된 글자 수와 신라목간에 사용된 글자 수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라목간에서 말음첨기의 표기에 생산적으로 이용되었던 ‘只, 尸, 乙, 邑, 叱’와 음차자로 사용되었던 ‘居, 伊, 史, 畝, 知’가 백제목간에서는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백제목간과 신라목간의 차자법과 표기법이 달랐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백제목간에서는 신라목간과는 달리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예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이 차이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백제에서는 단어를 어떻게 표기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音借字 爲主로 단어를 표기했다.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은 단어의 개개 음절을 각각 하나의 음차자로 적는 표기법을 가리킨다. 예컨대 인명 ‘*오호류’를 ‘烏胡留’(나주 3)나 ‘烏乎留’(구아 8)로, 지명 ‘*모라’를 ‘毛羅’(나주 3)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훈주음종의 원리에서는 첫 글자가 항상 훈차자이어야 하고 여기에 음차자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음차자 위주의 표기에서는 단어의 첫 음절도 음차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는 (33)에서 이미 인용한 익산 미륵사지 1호 목간이다. 이 목간에서는 대부분의 글자가 음차자로 쓰였고, 첫째 글자부터 음차자일 때가 많다. 이와 같은 표기법을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42) 익산미륵사지 1호 목간의 표기법¹⁶⁾

	목간의 표기	훈차와 음차의 표기법	한국 자료 중심의 재구	수사의 최종 재구
1	伽第邑	음+음+음	*gadəp	*gadəp/*가딕
2	矣毛邑	음+훈+음	*itərip	*itərip/*이더릅
3	新台邑	훈+음+음	*saydɔp	*saydɔp/*새딕
5	刀土邑	음+음+음	*tasip	*tasip/*다십
7	日古邑	음+음+음	*nilgop	*nilgop/*닐곱
	二[]口邑	음+[]+음+음	*ni[]gup	*ni[]gup/*닐곱
8	今毛邑	훈+훈+음	*yətərip	*yətərip/*여더릅
	以 ² 如邑	음+훈+음	*yɔtəp, *yətəp	*yɔtəp/*으딕, *yətəp/*여딕

에서는 688개의 표제항을 제시한 바 있다.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를 적극적으로 추독하는 학자에게는 이 수치가 커질 것이고 신중을 택하여 소극적으로 판독하는 학자에게는 이 수치가 작아질 것이므로 이 수치가 유동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6) 이 표는 李丞宰(2011나)의 표를 이 글의 취지에 맞게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음절 중에는 한자음을 빌려서 표기하기가 어려운 음절이 있다. 예컨대, 한국어의 ‘불(火)’, ‘털(毛)’, ‘옷(衣)’, ‘밤(夜)’, ‘봄(春)’ 등의 음절을 중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어 중고음에는 음절말 자음 **ㄹ*이나 **ㅅ*을 가지는 한자가 아예 없을뿐더러 ‘밤’이나 ‘봄’을 독음으로 하는 한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어와 중국 한어의 음절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차자를 수용하게 된다(李丞宰 2011나). 예컨대, **털*과 **불*을 각각 혼차자인 ‘毛’와 ‘火’로 표기하게 된다. (42)에서도 ‘毛, 新, 今, 如’ 등이 혼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되었다. 결론적으로,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이란 한국어 단어를 음차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혼차자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표기법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익산 미륵사지 1호 목간을 백제목간으로 볼 것인가 신라목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목간이 백제목간이라면 백제의 표기법은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李丞宰(2011나)는 이 목간을 “7세기 말엽이나 8세기 초엽에 백제의 후예가 百濟의 表記法으로 南方 韓國語의 數詞 여섯 개를 記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어 數詞를 표기할 때에 신라 향가에서는 첫 글자에 ‘一, 二, 千’ 등의 漢數詞를 사용했는데, 미륵사지 목간에서는 한수사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논거로 들었다. 이제, 향가에 나오는 수사에다 신라목간에 나오는 수사를 더하여 종합해 보자.

- (43) 가. 卍—³ㅅ - *(사십)흔듭 (안압지 41)
 나. 三ㅅ - *사듭 (안압지 5)
 다. 四ㅅ - *너리 (성산 218)
- (44) 가. (六十²ㅅ) | ㄹ - *(륙십)다습 (성산 221)
 나. |²沙ㅅ(月³) - *다습(달) (이성 6)

(43~44)는 앞에서 이미 논의한 신라목간의 수사를 한군데에 모아 본 것이다. (43)의 예들은 漢數詞 ‘一’, ‘三’, ‘四’의 바로 뒤에 ‘ㅅ’ 또는 ‘|’가 왔으므로 훈주음종의 원리에 따른 표기이다. 반면에, (44)에서는 한수사 ‘五’를 사용하지 않고 ‘| ㄹ’과 ‘|²沙ㅅ’으로써 각각 고유어 수사 **다습*과 **다습*을 표기했다. 수사의 표기에 한수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이들은 훈주음종의 표기가 아니다. 그런데 ‘|’가 ‘如’에서 비롯된 한국한자이고 ‘如’의 훈이 **다(ᄃ)*-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가 혼차자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음차자 ‘ㄹ’ 또는 ‘沙ㅅ’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44)의 예들도 훈주음종의 원리에 어

곳나지 않는다. 南豐鉉(1981)의 용어를 빌리면, 한수사 ‘五’는 訓讀字인데 비하여 (44)의 ‘|’는 訓假字가 된다. 두 가지 다 훈차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기술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單자리¹⁷⁾ 수사를 항상 훈주음종의 원리로 표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백제목간에서는 훈주음종의 원리에 따라 표기하거나 발음을 첨기한 예를 찾을 수 없다. 미륵사지 1호 목간에서도 훈주음종의 원리를 찾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미륵사지 1호 목간을 백제목간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42)의 ‘伽第𠄎’, ‘矣毛𠄎’ 등의 ‘𠄎’을 발음첨기에 넣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𠄎’은 한국어 수사에 덧붙는 접미사 ‘- *ㅂ/읍’을 표기한 것이므로(李丞宰 2011나), 선행하는 語基와는 표기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 즉 선행하는 어기가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아무 관계가 없다. 어기의 문법 범주가 수사이면 음운론적 환경에 관계없이 ‘𠄎’이 통합된다. 이 점에서 미륵사지 목간의 ‘𠄎’은 발음첨기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기보다 접미사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표기법의 용어인 발음첨기와 언어학적 용어인 접미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둘을 엄격히 구별하여 표기법의 관점에서 ‘𠄎’을 정의한다면 ‘𠄎’은 음절말 자음 ‘*ㅂ’을 표기하는 발음첨기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미륵사지 1호 목간은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서 백제목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하여 미륵사지 1호 목간에 신라 표기법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목간의 ‘𠄎’은 성산산성, 이성산성, 월성해자, 안압지 등의 신라목간에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절말 자음 ‘*ㅂ’의 표기에 이용된 ‘𠄎’은 신라에 기원을 둔 한국한자임이 분명하다. ‘刀、邑佐’ (부여 쌍북리280 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백제에서는 ‘𠄎’ 대신에 ‘𠄎’을 사용했다. 그런데도 ‘𠄎’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륵사지 1호 목간은 신라 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42.8)의 ‘以²如𠄎’에 구결자 연쇄 ‘; +’가 붙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백제와 신라의 목간에서는 자획을 줄이거나 생략한 한국한자가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신라 기원의 한국한자 중에는 후대의 구결자와 자형이 같은 것이 특히나 많다. 따라서 구결자의 기원을 신라에서 제작한 한국한자에서 찾을 수 있다(Lee 2012). 이 논의에 따르면 이 목간의 구결자 연쇄 ‘; +’는 신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 백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미륵사지 1호 목간은 분명히 신라 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李丞宰(2011나)에

17) +자리 이상의 수사는 ‘六十𠄎’에서 볼 수 있듯이 음독했으므로, 여기에 ‘單자리’를 넣어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

서는 이 영향에 대해 미처 주목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보완해 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륵사지 1호 목간은 음차자 위주의 표기를 기본으로 삼았으므로 백제목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라 표기법에 특유한 ‘𪎮’과 ‘ㄱ+’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 표기법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 같지만, 이 목간의 제작 시기가 7세기 말엽이나 8세기 초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제작되었다면, 백제의 표기법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신라의 표기법이 뒤섞였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백제와 신라의 표기법이 뒤섞인 현상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도 관찰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신라목간에 사용된 ‘只, 尸, 乙, 音, 叱, 居, 伊, 史, 畝, 知’ 등의 10개 글자가 백제목간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리지에서는 백제 지명을 표기할 때에도 ‘只, 尸, 乙, 音, 居, 伊, 史, 知’ 등의 8개 글자를 사용했다. 이것은 경덕왕이 지명을 개편할 당시의 신라 표기법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백제 지명에 적잖이 반영되었음을 뜻한다. 백제목간과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글자는 ‘叱, 畝’의 2개인데, 흥미롭게도 이 두 글자는 지리지에서 신라나 고구려의 지명을 표기할 때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도 8세기 중엽의 신라 표기법이 삼국의 지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암시한다.

(45) 完山 [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 (권37)

(46) 가. 新良縣 本百濟沙尸良縣 (권36)

나. 大山郡 本百濟大尸山郡 (권36), 帶山縣 本大尸山 (권37)

다. 多岐縣 本百濟多只縣 (권36)

라. 水川縣 [一云水入伊] (권37)

(45)의 ‘完山’에 대해 ‘比斯伐’ 또는 ‘比自火’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지리적 위치는 백제 지역의 ‘完山’ 즉 지금의 ‘全州’인데, 이것을 신라식 표기인 ‘伐’이나 ‘火’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백제식 표기라면 ‘伐’이나 ‘火’ 대신에 ‘夫里’를 쓸 곳이므로, ‘比斯伐’과 ‘比自火’는 신라식 표기가 섞여 들어간 백제 지명이라 할 수 있다. (46가~다)에서는 백제목간의 표기에서는 전혀 사용된 바 없는 ‘尸’와 ‘只’를 사용했다. (46라)에서는 ‘*(물)들이’를 ‘(水)入伊’로 표기했는데, 이러한 혼주음종의 표기법을 백제목간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45~46)의 예들은 모두 신라식 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지명 표기라고 할 수 있다.

(47) 통일신라 표기법의 영향이 보이는 백제 지명

- 가. 尸(6) - 馬尸山郡, 沙尸良縣, 大尸山郡, 豆尸伊縣(一云富尸伊), 古尸伊縣, 武尸伊郡
- 나. 只(11) - 伐首只縣, 奴斯只縣, 豆仍只縣, 仇知只山縣, 只良肖縣, 只伐只縣, 所力只縣, 豆夫只縣, 多只縣, 古祿只縣, 武珍州(一云奴只)
- 다. 伊(8) - 豆伊縣, 也西伊縣, 豆尸伊縣(一云富尸伊), 伯伊郡, 古尸伊縣, 武尸伊郡, 古西伊縣, 水川縣(一云水入伊)
- 라. 乙(2) - 進仍乙郡, 加知奈縣(一云加乙乃).
- 마. 居(4) - 勿居縣, 居斯勿縣, 居知山縣, 居拔城.
- 바. 史(1) - 比史縣
- 사. 知(7) - 仇知縣, 知六縣, 仇知只山縣, 加知奈縣, 古馬跡知縣(古馬未知縣), 松彌知縣, 居知山縣
- 아. 勿(5) - 今勿縣, 勿居縣, 甘勿阿縣, 居斯勿縣, 勿阿兮郡

『삼국사기』 지리지의 백제 지명 가운데 ‘尸, 只, 伊, 乙, 居, 史, 知, 勿’ 등이 포함된 지명은 백제 고유의 표기법이 아니라 통일신라의 표기법으로 표기되었다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표기 예들이 아주 많다는 데에 있다. 지리지 권제36에서 백제 지명이라고 밝힌 것은 138개 항목이고 권제37에 열거된 백제 지명은 146항목이다. 평균을 취하면 백제 지명이 142개 항목에 기록된 셈인데, 개별 글자를 기준으로 하면 (47)에서 볼 수 있듯이 44개 항목이 통일신라 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항목 5개를 제외하면 39개 항목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백제 지명 항목의 27.5%에 이른다. 이 점에서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된 백제 지명은 백제의 표기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니다. 백제 표기법과 신라 경덕왕 때의 신라 표기법이 뒤섞인 표기법으로 백제 지명을 표기했다고 해야만 정확하다. 이 점에서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 표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백제의 표기법을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이라 하고 신라의 표기법을 훈주음종의 표기법이라 할 때에, 신라에서도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 (48) 伊夫兮村(성산 81), 密鄒加爾支(성산 82), 知弥留(성산 118), 阿伐支(성산 143), 器尺一石(성산 119)
- (49) 比尸河村(성산 39), 巨弥兮城(성산 58), 買谷村(성산 117, 184), 加火魚(안압지 7, 35)

(48)의 지명과 인명은 신라의 표기인데도 모두 음차자로 표기되어 있다. (48)의 물명 ‘器尺’은 ‘*기작’(현재의 穀名 ‘기장’) 정도로 재구되므로(李丞宰 2009) 음차자 위주의 표기이

다. (49)도 음차자 위주의 표기에 해당하는데, 음차자 뒤에 훈차자 ‘河(*물), 玆(*돌), 谷(*실), 火(*불)’ 등이 뒤따른다. 이들이 모두 음절말 자음 *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중국 한자의 중고음에는 음절말 자음의 *ㄹ’이 없으므로 당시의 음차자로는 이 *ㄹ’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훈차자를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

(50) 『咸安城山山城 162』 : [×仇伐阿那内欣買子一石買稗石]

(51) 『慶州月城塚子 3-1』 : [行還去收面+里石 食二]

(50)의 ‘内欣買子’는 곡명의 일종으로서 ‘内欣 *메씨’에 대응하는 듯하다. ‘内欣’이 무엇을 표기한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買子’가 *메씨’에 대응한다면¹⁸⁾ ‘買’는 음차자이고 ‘子’는 훈차자가 된다. 곡명 ‘買稗’가 *메피’에 대응한다면 이곳의 ‘買’도 음차자이고 ‘稗’는 훈차자이다. (51)의 ‘面+里’는 穀名 ‘겉보리’에 대응하는 듯하다. ‘面’은 훈차자로, ‘+’와 ‘里’는 음차자로 사용되었다. 이들도 모두 음차자와 훈차자가 뒤섞인 표기인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표기를 音訓交用 표기라고 부른다. 이 음훈교용 표기법은 사실은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 밑에 오는 하위 개념이다. 음차자 위주로 표기하다가 음차자로 표기할 수 없을 때에 훈차자를 섞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백제목간에서도 이러한 음훈교용 표기의 예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미륵사지 목간 1호를 제외하면 음훈교용 표기를 찾기가 어렵다. 신라목간 자료에 비하여 백제목간 자료가 양이 아주 적어서 그런 것인지, 구조적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일단 (C)와 관련하여, 백제목간에서는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 확정해 둔다.

이제, 백제목간을 대상으로 (A)와 (B)의 표기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문장을 표기한 목간은 백제목간이 15점 정도이고 신라목간이 16점 정도이다. 백제목간이 신라목간에 비하여 전체 수량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지만, 문장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백제목간의 수량이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먼저, 백제목간에서 (A)의 한국어 어순에 따라 표기한 것을 찾아보기로 하자.

18) 현대어에서도 ‘멤쌀’과 ‘참쌀’을 구별한다. 이들은 각각 ‘메+쌀’과 ‘차+쌀’에서 온 곡명이다.

- (52) 『扶餘陵山里寺址 11-1-1』 : [宿世結業同生一處是]
 前生에 맺은 인연으로, 한 곳에 났으니
 『扶餘陵山里寺址 11-1-2』 : [非相問上拜白來]
 是非를 서로 묻되, 위로 절하고 사죄러 오라
 『扶餘陵山里寺址 11-2』 : [慧暈師藏] 慧暈 스승 所藏

이 목간은 백제의 詩歌가 기록되었으므로 金永旭(2003)이 宿世歌 목간이라 명명한 목간이다. 이 목간의 ‘宿世結業’과 ‘同生一處’는 중국 한어의 어순인 데에 비하여, ‘是非相問’과 ‘上拜白來’는 한국어 어순이다. 이 목간의 어순은 起句와 承句에서는 한어 어순을, 轉句와 結句에서는 한국어 어순을 택한 혼성어순이다(Lee 2013). 비록 후반부에서만 한국어 어순이 나타나지만, 백제가 한국어 어순에 따라 문장을 표기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에는 손색이 없다. 부여 능산리사지 목간은 6세기 3/4분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李炳鎬 2008) 백제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한국어 어순 표기가 적용된 셈이다.

- (53) 『扶餘官北里 1-1』 : [(二月十一日兵与詔)] 2월 11일, 兵与에게 알린다 ...
 『扶餘官北里 1-2』 : [(中方向向)] 中方의 向...
 (54) 『扶餘東南里 1-1』 : [× 宅教禾田≡犯兄害爲教事]
 宅이 관할하는 禾田들을 범한 兄을 害하라고 명령하신 일

(53)의 부여 관북리 1호 목간은 7세기 2/4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단부가 파손되었지만 ‘兵与詔’의 어순이 주목된다. 이것은 한국어 어순으로서 ‘兵与에게 알린다’의 의미를 가진다. ‘兵与’는 인명이 아니라 ‘병사’로 구성된 ‘부대’를 뜻할 것이다. 상급부대에서 하급부대에 내린 일종의 통지문이라 할 수 있는데, 통지의 주체는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 ‘中方’의 하위 부서로 ‘向向’이 있었고 여기에 속한 ‘向向...’가 통지의 주체가 된다.

(54)는 부여 동남리 1호 목간인데, 이 목간은 7세기 3/4분기, 즉 백제 멸망 시기의 목간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이 목간을 일종의 판결문으로 보아 (54)의 번역문처럼 해독한다. 이에 따르면 이 목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 어순을 따랐다. 끝에 온 ‘害爲教事’에는 신라의 이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教事’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신라에서처럼 ‘분부하신 일, 명령하신 일’ 정도의 의미로 쓰였고, 그 앞에 온 ‘害爲’의 ‘爲’는 ‘*ㅎ-’ 동사를 표기한 것이 분명하다. 백제목간에서 ‘*ㅎ-’ 동사를 표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이 목간은 백제와 신라의 언어가 별로 차이가 없었음을 주장할 때에 아주 귀중한 예가 된다.

위의 세 목간을 통하여 백제목간에서도 한국어 어순이 두루 확인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국어 어순이 적용된 최초의 백제목간은 6세기 3/4분기에 제작된 (52)의 능산리사지 11호 목간 즉 宿世歌 목간이다.

그런데 위의 세 목간에 (B)의 한국어 문법 형태가 표기되었을까? 金完鎭(2005)에서는 (52)의 '白來'를 '*슬보라'로 해독하여, '來'가 '*숄-' 동사에 후속하는 語尾 부분을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6세기 3/4분기부터 한국어 문법 형태가 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李丞宰(2008가)에서는 '來'를 '*오-' 동사로 읽어, 어미 부분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來'가 문법 형태를 표기한 예를 달리 찾기가 어려울뿐더러 백제목간에서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은 후술할 '之, 也, 中, 以, 者'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53)과 (54)에서도 문법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54)의 '爲'와 '敎事'는 각각 '*흐-' 동사와 '명령하신 일'에 대응하므로 문법 형태가 아니라 어휘 형태이다.

- (55) 『扶餘陵山里寺址 4-1』 : [○奈率加■白加之恩以■淨]
 奈率 加■白加之 恩혜로 ■ 깨끗하며
- 『扶餘陵山里寺址 4-2』 : [○急明 靜腦右■法師■八]
 급히 밝아짐, 靜腦 右■法師 ■八
- (56) 『扶餘雙北里102 1-1』 : [彙■來時伎兒來■ ■ ■]
 ■(가) 온 때에 伎兒(이) 와 ■ ■ ■
- 『扶餘雙北里102 1-2』 : [彙■言以聞■成]
 ■ 말로/을 듣고 ■ 이름.¹⁹⁾

(55)는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원형 목간이다. 부여 쌍북리 102번지에서 출토된 (56)은 윗부분이 파손되어 앞면과 뒷면의 문장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7세기 중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55)와 (56)의 번역문처럼 해독하면 한국어 어순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문장이 되므로 이들도 한국어 어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의 한국어 어순이 확인되는 백제목간은 (52~56)의 5점이나 된다.

그런데 (55)의 번역문에서 '之'를 한국어의 속격조사 '-의'로 번역하더라도, '加■白加之恩'의 '之'는 오히려 중국 한어의 문법에 더 가까운 용법이므로 이 '之'는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55)에 나오는 '恩以'의 '以'를 경주 남산신성비의 '如法以'의

19) 이 목간에는 尹善泰(2009)가 강조한 바 있는 '口頭傳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은 '文字傳言'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 목간을 통하여 당시에 이 두 가지가 공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以’처럼 ‘-’로 읽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以’가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동사를 표기한 것으로 보아, ‘恩以’를 ‘은혜를 써서’ 또는 ‘은혜를 가지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 (56)에서는 ‘以’를 대격조사 ‘-’로 읽으면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되지만, ‘以’는 대격조사보다는 구격조사 ‘-’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는 달리 이 ‘以’를 뒤쪽에 붙여서 ‘以聞■成’의 한문 구성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言’의 앞에 온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방안을 택해야 할지 여기에서는 판단을 유보해 둔다. 결론적으로 위의 다섯 개 목간만으로는 (B)의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했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7) 『扶餘陵山里寺址 7-1』 : [(書亦從此法爲之凡六口五方)]

書(式) 또한 이 법을 좇아야 한다. 무릇 六口五方

『扶餘陵山里寺址 7-2』 : [(又行之也凡作形`、中了具)]

또한 그것을 행한다. 무릇 짓는 형식들에 갖추었다.

(B)의 한국어 문법 형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목간은 (57)의 능산리사지 7호 목간이다. 이 목간의 어순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국 한어의 어순에 가깝다. ‘從此法’과 ‘行之’가 두 드러진 예이다. ‘行之’의 바로 뒤에 ‘也’가 통합된 것으로 보아 이곳의 ‘之’는 대명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목간에 나오는 ‘爲之’의 ‘之’는 한국어의 단락 종결사에 해당하고, ‘行之也’의 ‘也’도 단락 종결사 또는 메시지 종결사로 쓰인 듯하다.²⁰⁾ ‘形`、中’의 ‘中’도 한국어의 처격조사에 해당하는 듯하다. 따라서 ‘之, 也, 中’의 세 글자가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金秉駿(2009)에 따르면 ‘之’와 ‘中’은 중국의 목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57)의 ‘之, 也, 中’이 한국어의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 한어의 문법에 따른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이들의 독법이다. 만약 ‘之’가 중국 한어와 달리 ‘*다’를 표기한 것이라면 이것은 한국어 고유의 종결사를 표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라에서는 이 ‘之’가 ‘*다’로 읽혔음이 확인된다. 戊戌塙作碑(578년)와 華嚴經寫經造成記(754년)의 두 자료에서 ‘之’가 ‘如’와 교체된다(李丞宰 2008나). ‘如’는 훈독자로서 ‘*다’를 표음하므로 교체 관계에 있는 ‘之’도 ‘*다’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중국 한어에서는 이러한 독법이 아예 없다. 이 점에서 신라의 ‘之’

20) 李丞宰(2013)에서는 ‘之’가 단락 종결사인 데에 비하여, ‘也’는 단락보다 큰 단위인 ‘메시지’ 또는 ‘화제’를 분절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가 한국 고유의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 자료에서는 이러한 논거를 찾을 수가 없다. ‘之’가 신라에서 ‘*다’로 읽혔으므로 백제에서도 ‘*다’로 읽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선부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57)의 ‘之, 也, 中’이 백제어의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 같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없는 상태라고 기술해 둔다.

그런데 (57)에 제시한 능산리사지 7호 목간에 서식을 규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목간은 首尾가 온전한 완전 목간이므로 기록 당시의 텍스트가 그대로 남아 있는 목간이다. 또한 글자가 선명하여 판독의 어려움도 전혀 없다. 이 목간의 첫 글자 ‘書’는 ‘글씨, 문서, 서식’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문맥으로 보면 이 ‘書’가 ‘서식’에 해당한다. 법을 좇아야 하고 각종 국가기관에서 행해야 하며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는 ‘서식’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 ‘서식’을 갖추었다는 것은 6세기 3/4분기에 이미 백제에서 문서행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능산리사지 25호 목간의 문서명 ‘支藥兒食米記’와 부여 쌍북리 280번지 1호 목간의 문서명 ‘佐官貸食記’에서 확인된다. 신라목간에서는 ‘~記’로 명명한 문서 형식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記’가 백제목간 고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8) 扶餘陵山里寺址 24호 목간

1면 : [■■■ … ■■■言■■■ … ■■■]

말

2면 : [則憲拜而受之伏願常上此時]

(하면) 기뻐 절하고 받을 것입니다. 옆드려 원컨대, 늘 이것을 올릴 때

3면 : [道■■■ … ■■■死■■■禮禮]

道■■■ … ■■■ 죽음 ■■■ 禮(마다)

4면 : [經德此幸值員因故■■灼除八永仰者斷四地]

經(과) 德 이것은 다행히 값진 사람(의) 원인(인) 까닭(에) 살라 제거한 여덟(명을) ■■(하고) 길이 우러르면 四地를 그칠 것입니다.

國立扶餘博物館(2007: 255)은 (58)의 2면에 ‘伏願’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목간을 국왕에 올리는 上疏文이나 외교문서로 추정했다. 문서의 일종임은 분명하지만, 내용은 일종의 請願書가 아닐까 한다.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가 많아 단정할 수 없지만, 청원의 내용은 둘째의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지위를 박탈당한 여덟 명을 赦免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요, 둘째는 살라 없앤 경전 여덟 가지를 복원하여 받들자고²¹⁾ 청원하는 것이다. 이 목간이 청원

‘自’가 두 번 쓰여 주목된다. ‘**■**晨自’는 ‘**■**새벽부터’로, ‘**■**城自’는 ‘**■**城부터’로 해독된다. 이 ‘自’가 한국어 어순을 따랐다는 점에서 신라의 壬申誓記石에 나오는 ‘今自三年’의 ‘自’와 용법이 일치한다. 이 일치는 백제목간의 표기법과 신라 금석문의 표기법이 일맥상통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 (A)의 한국어 어순에 따라 표기한 예가 백제목간에서도 두루 확인된다. (B)의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 듯한 ‘之, 也, 中, 以, 者’ 등이 백제목간에 많이 나오지만, 이들이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증거 부족의 원인은 660년에 멸망한 뒤로 백제 자료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를 논의할 때에 강조해야 할 것은 백제와 신라의 문장 표기에서 ‘之, 也, 中, 以, 者’ 등의 글자가 공통된다는 점이다. 이 글자들이 6세기 중엽의 목간부터 7세기 중엽까지의 목간에 두루 사용되었다는 것도 양국에 공통된다. 이에 따르면 백제목간의 문장 표기가 신라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목간에서는 신라목간에 비하여 중국 한문의 문장 형식이 훨씬 자주 이용된다. 능산리사지 24호 목간 2면의 ‘則憲拜而受之’, 4면의 ‘此幸值員因故’ 등에서 한어 문법의 ‘則, 而, 故’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라목간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쉽사리 찾을 수 없으므로 백제가 신라보다 한문 수용이 빨랐고 한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백제목간의 문장 표기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을 든다면 아마도 그 난해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62) 扶餘陵山里寺址 25호 목간

3면 : [食道邊**■**次如逢**■**豬耳其身者如黑也 道使後後彈耶方^{牟氏} 校耶]

밥 먹는 길 가(에서) **■**(하던) 次(에), 관리 돌귀(를) [그 몸은 검정과 같다] 맞이 했듯이 道使(를 맞이한) 뒤(에), (그) 뒤(에) 彈耶方[牟氏, 牟祿](과) 校耶(方)을 (맞이했다)

능산리사지 25호 목간은 ‘支藥兒食米記’라는 문서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간의 3면에는 (62)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은 아직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것이 난해한 문장임은 분명하다. 이 난해성은 바로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가설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 문장을 (62)의 번역문과 같이 해독한다. 이처럼 해독

할 때에 ‘其身者如黑也’가 해독의 열쇠가 된다. 이 문장은 ‘P者Q也’ 형식의 주석문임이 분명하다. 주석문은 앞에 온 단어에 부속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전체 본문에서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 주석문은 앞에 온 인명 ‘豬耳’에 대한 주석이다. 金永旭(2011)은 두 글자를 모두 혼독하여 인명 ‘*돌귀’로 해독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이 인명 앞에는 신분이 관리임을 나타내는 ‘使_始’가 덧붙었고, 뒤에는 ‘豬耳’의 인상을 나타내는 주석문 ‘그 몸은 검정과 같다’가 덧붙었다. 밥 먹는 길 가에서 무엇인가를 하던 차에 이 관리를 손님으로 맞이했다. 맞이한 주체는 支藥兒(지금의 醫藥局)에 소속된 관리일 가능성이 크지만 문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 지역아 관리가 ‘豬耳’를 손님으로 맞이한 것처럼, 그 뒤에 ‘道使’를 맞이했다. 또 그 뒤에 ‘彈耶方’ 소속의 ‘牟氏’와 ‘牟祿’를 맞이하고 또 ‘椶耶’를 맞이했다. ‘彈耶方’은 화살촉을 제조하는 부서이고 ‘椶耶(方)’은²²⁾ 창을 제조하는 부서일 것이다. ‘彈’은 ‘탄알’을 뜻하고 ‘椶’는 ‘창’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이 해독에 따르면 이 문장의 동사는 ‘如逢’의 ‘逢’ 하나이고 목적어는 그 뒤에 순차적으로 나열된 여러 명의 관리이다. 이 관리들은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지역아를 방문했을 것이다.

(63) 扶餘舊衙里 2호 목간

1면 : [所_所信來以敬辱之於此貧薄]

■ 믿어(信) 온(來) 바(所)를 써서(以), 존경(敬)이나 치욕(辱)이 된다(之). 이(此)에 (於) 가난하고(貧) 얇박한(薄) (원인의)

2면 : [一无所有不得仕也 莫眇好耶荷陰之後 永日不忘]

하나(一)는, 가진(有) 것(所)이 없으면(无) 벼슬(仕)도 못(不) 얻는다는(得) 것이다 (也). [좋은 것(好耶)에 눈멀지(眇) 말고(莫), 그늘(陰)의(之) 뒤(後)를 책망하라(荷). 길이(永日) 잊지(忘) 말라(不).]

(63)의 부여 구아리 2호 목간도 일부를 제외하면 해독하기가 아주 어렵다. ‘一无所有不得仕也’는 ‘가진 것이 없으면 벼슬도 얻지 못한다’로, ‘永日不忘’은 ‘길이 잊지 않는다’로 바로 해독된다. 그러나 ‘所_所信來以敬辱之於此貧薄’과 ‘莫眇好耶荷陰之後’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구태여 해독해 본다면 (63)의 번역문이 될 것이다. 이 번역문의 ‘바(所)를 써서(以)’는 ‘바로써’의 축자적 해석이고, ‘敬’과 ‘辱’은 내용상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돈으로 벼슬을 사는 것과 같은 부정이 횡행하는데,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늘 뒤에 감춰진 것을 비난하라는 내용인 듯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한국어적인 요소

22) 이 목간의 ‘椶耶’는 ‘椶耶方’의 ‘方’이 생략된 표기일 것이다. 이때의 ‘耶’는 ‘冶’의 의미가 아닐까?

를 찾을 수 없다.

(62)와 (63)은 비록 가설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해독해 볼 수 있다. 이 두 목간에서는 한국어적인 요소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모두 중국 한문으로 되어 있다. 이 공통점과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는 것도 공통점 중의 하나이다. (62)와(63)은 억지로라도 해석해 볼 수 있으나 다음의 목간은 무엇을 기록한 것인지 전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64) 扶餘陵山里寺址 22호 목간
1면 : [(馳聖辛露隋憲壤醞強■)]

(64)의 능산리사지 22호 목간은 4면 목간의 일종이므로 문서를 기록한 목간일 가능성이 크다. 이 목간의 2~4면은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1면은 그래도 판독이 가능하다. 그런데 판독 결과를 해독하려고 하면 바로 막막해진다. 아마도 한국어의 문법 형태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느껴질 것이다. (64)는 한문 문장이라는 보장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서, 난해한 암호문인 것처럼 느껴진다.

(62~64)의 목간에서는 한국어 어순이나 한국어의 문법 형태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신라목간에 비하여 해독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것은 신라목간보다 백제 목간에서 중국 한문을 이용하여 작문을 한 경우가 많았음을 증명해 준다.

이제 백제목간의 표기법을 정리해 보자. 백제목간에서는 (C)의 훈주음종과 말음첨기의 표기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백제에서는 음차자 위주로 단어를 표기했고, 둘째는 말음을 첨기하는 표기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A)의 한국어 어순은 적어도 5점 이상의 백제목간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백제어는 현재의 한국어처럼 SOV 언어였음이 분명하다. 백제목간에서 (B)의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는 ‘之, 也, 中, 以, 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택할 수도 있다.

위의 (C)에 대한 정리를, 백제 표기법에 훈차자 위주의 표기가 없었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백제에도 훈차자 위주의 표기가 분명히 있었다. (52)에 제시한 宿世歌의 ‘是非相問 上拜白來’는 훈독하는 글자 8개를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배열한 것이므로 백제에 훈차자 위주의 문장 표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라의 誓記體 문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훈차

자 위주의 문장 표기에 속하므로, 백제와 신라는 훈차자 위주의 표기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54)에 제시한 부여 동남리 목간의 ‘害爲敎事’를 ‘*害홀 이신 일’로 재구하고 (62)에 제시한 ‘支藥兒食米記’의 ‘豬耳’를 ‘*돌귀’로 재구한다면, 이들도 훈차자 위주의 단어 표기이다. 예가 많지 않지만 단어 표기에서도 훈차자 위주의 표기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백제에서는 음차자 위주의 표기와 훈차자 위주의 표기가 공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백제와 신라가 차이가 난다면, 신라에서는 말음첨기법이 확실히 적용되었지만 백제에서는 그런 예를 찾을 수 없다는 차이뿐이다. 백제에 말음첨기법이 없었으므로 그 부분집합인 훈주음종의 표기가 없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B)에 대한 정리에서도 첨언해 둘 것이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백제목간의 ‘之, 也, 中, 以, 者’ 등은 초기의 신라 이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공통점을 강조하여 신라목간 뿐만 아니라 백제목간에서도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의 독법을 알 수 없다는 점과 이들이 중국 한어의 虛辭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이들을 (B)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백제목간의 ‘之, 中, 者, 以, 也’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A)의 한국어 어순을 지키는 백제목간에서는 (B)의 한국어 문법 형태를 찾기가 어렵고 반대로 (B)의 조건을 갖춘 백제목간에서는 (A)의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가 많다. (A), (B), (C)의 세 조건을 두루 갖춘 백제목간은 (54)의 부여 동남리 1호 목간밖에 없다. 이 목간은 7세기 3/4 분기, 달리 말하면 백제 멸망 시기의 목간이다. 반면에, 신라목간에서는 6세기 중엽의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에서부터 이미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두루 갖추어졌다.

IV. 마무리

지금까지의 고대어 표기법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신라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였다. 백제어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신라의 향가나 이두 자료를 대상으로 고대 한국어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백제 지역에서 적잖은 양의 목간이 출토됨으로써 이제는 신라 자료와 백제 자료를 엄격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이 필요에 맞추어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에 기록된 문자 자료를 중심으로 양국의 표기법을 대비하는 데에 이 글의 최종 목표를 두었다.

이 대비를 위하여, 먼저 기존의 신라 금석문과 고문서 자료에 나오는 표기법을 간단히 정리했다. 지금까지 戊戌塢作碑는 (A)의 한국어 어순에 따르고 (B)의 한국어 문법 형태를 드러내어 표기한 最古의 자료였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은 주로 8세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戊戌塢作碑의 편년 578년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간자료를 포함하게 되면 이 편년이 옳은 것으로 드러난다. 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이 분명한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에서 (A)와 (B)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목간에는 기왕에 논의되어 왔던 ‘中, 之, 也’뿐만 아니라 ‘在, 此, 遣, 乙’ 등도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목간에는 한국어 단어를 (C)의 훈주음종과 말음첨기로 표기한 예도 나온다. 이 목간의 ‘六十²邑’ | 𠄎은 수사 65 즉 *륙십 다습에 대응하는데, 이곳의 ‘| 𠄎’이 훈주음종의 표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은 (A), (B), (C)의 조건을 두루 갖춘 最古의 한국어 자료이자, 最高級 이두 자료이다.

다음으로, 신라목간에 나오는 훈주음종의 표기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 ‘文尸[*글]’(4회), ‘蒜尸[*마늘]’, ‘糸利[*시리]’, ‘四川[*너리]’, ‘𠄎利[*터리]’, ‘益丁[*더덩]’, ‘| 𠄎[*다습]’ 등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남 이성산성, 경주 월성해자, 경주 박물관터, 경주 안압지 등의 목간에서 ‘大畝[*한사]’(3회), ‘赤居[*불거]’, ‘有史[*이시]’, ‘三邑[*사답]’, ‘一²邑[*하답]’, ‘助史[*맛]’(6회)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신라목간 자료에서 적어도 13개의 훈주음종 표기를 찾아낸 것이다. 여기에서 훈주음종 표기가 신라의 보편적 표기법이었고, 6세기 중엽에 이미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목간에서 말음첨기자로 사용된 글자는 ‘利, 川, 尸, 伊, 丁, 𠄎, 畝, 居, 史, 邑’ 등이다. 여기에 향가에서 말음첨기자로 두루 사용된 ‘只, 乙, 音, 叱’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글자들을 중심으로 백제목간의 표기를 검토해 보았더니, 백제목간에서는 이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利’의 용례가 두 개 확인될 뿐이고 나머지 글자는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백제목간에서는 훈주음종이나 말음첨기와 같은 표기법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거꾸로 훈주음종의 표기가 신라 고유의 표기법임을 말해 준다. 나아가서 신라와 백제에서 빌려서 사용한 借字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랐을 가능성도 암시한다.

그렇다면 백제에서는 단어를 어떻게 표기했을까? 자료가 많지 않아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백제에서는 음차자 위주의 표기로 단어를 표기한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익산 미륵사지 1호 목간을 들 수 있다. 이 목간에는 고대의 수사가 기입되어 있는데, 단어의 첫째 음

절조차도 음차자로 표기했다. 7세기 말엽이나 8세기 초엽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 목간을 백제목간으로 볼 것인가 신라목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향가뿐만 아니라 신라목간에서는 單자리 숫자를 항상 훈주음종의 원리에 따라 표기했다. 이와는 달리 미륵사지 1호 목간은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을 택했으므로 이것을 백제목간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미륵사지 1호 목간에서는 ‘𑖇’이 여러 번 사용되었고 구결자 연쇄인 ‘3+’도 나온다. 이들은 신라목간에서만 사용되는 글자이므로 이 목간이 부분적으로 신라 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백제 지명 표기도 신라 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지리지에서는 백제 지명을 표기할 때에 ‘只, 尸, 乙, 音, 居, 伊, 史, 知’ 등의 8개 글자를 사용했는데, 이들은 신라에서는 음차자로 이용되었지만 백제목간에서는 사용된 바 없는 글자이다. 이것은 경덕왕이 지명을 개편할 당시의 신라 표기법이 지리지의 백제 지명 표기에 적잖이 반영되었음을 뜻한다. 지명 표기 항목의 적어도 27.5%가 신라 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지리지의 백제 지명을 이용할 때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A)의 한국어 어순에 따라 표기한 백제목간은 적어도 5점에 이르고 그 시기는 6세기 3/4분기의 부여 능산리사지 목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한국어 어순 표기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백제목간에서 (B)의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은 ‘之, 也, 中, 以, 者’ 등으로 한정된다. 이들은 초기의 신라 이두 자료에서 두루 확인되는 것들이다. 신라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한국어의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중국 한어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국어학자는 대개 전자의 견해를 택하고, 중국 한어 전공자들은 대개 후자의 견해를 택한다. 그런데 ‘之, 也, 中, 以, 者’ 등이 신라목간의 자료라면 이들을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단락 종결사 ‘之’가 ‘如’와 교체되므로 ‘*다’로 읽힌 것이 분명하다. 이 독법은 중국 한어에서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之, 也, 中, 以, 者’ 등의 글자가 한국어 문법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에서는 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유감이다.

백제목간의 문장은 해독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한국어의 문법 형태가 표기되지 않은 문장이 많고, 한문 문장으로 작성된 문장도 많기 때문이다. 백제목간에서는 능숙한 한문 문장

을 많이 찾을 수 있으나 신라에서는 그런 예가 많지 않으므로 백제인이 신라인보다 한문 작성 능력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은 (C)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 신라목간에서는 훈주음종과 말씀첨기라는 표기법을 적용했으나 백제목간에서는 이런 표기법을 찾을 수가 없다. 백제에서는 단어를 음차자 위주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었다. (B)에서도 약간 차이가 난다. 백제목간에서는 중국 한어의 虛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글자들을 문법 형태의 표기에 이용했다. 그러나 신라목간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實辭에 해당하는 글자로도 문법 형태를 표기했다. (A)의 한국어 어순에서는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이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을 채택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일본의 『古事記』(712년)와 『日本書紀』(720년)에 수록된 記紀歌謠이다. 萬葉歌 중에서 이 두 史書에 수록된 記紀歌謠는 『萬葉集』(783~790년)에 처음 수록된 萬葉歌와 표기법이 다를 때가 많다. 記紀歌謠는 문장 표기이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음차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의 훈차자가 이용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記紀歌謠의 표기법을 한국의 자료와 비교할 때에 신라의 향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記紀歌謠는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으로 기록되었고 향가는 훈주음종의 원리로 표기되었으므로 이 둘은 표기법의 계통이 완전히 다르다. 반면에 백제목간의 인명 및 지명 표기법과 記紀歌謠의 표기법은 둘 다 음차자 위주의 표기법이라는 점에서 계통이 같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백제목간과 記紀歌謠의 표기법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고일 : 2013. 2. 20. 심사개시일 : 2013. 2. 28. 심사완료일 : 2013. 3. 19.

〈참고문헌〉

- 國立夫餘博物館(2007), 『陵寺』(부여 능산리사지 6~8차 발굴조사 보고서), 부여: 國立夫餘博物館
 權仁瀚(2009), 『함안 성산산성 목간 속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하여』, 『동아시아 자료학의 가능성』,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pp.235~262.
- 金秉駿(2009), 『낙랑의 문자생활』,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소통』,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35~51.
 金星奎(1984), 『國語 數詞體系의 一考察』, 『冠嶽語文研究』 9, 서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pp. 419~432.
 金永旭(2003), 『百濟 吏讀에 대하여』, 『口訣研究』 11, 서울: 口訣學會, pp. 125~151.
 _____(2010), 『古代國語의 處所格 助詞에 對하여』, 『國語學』 57, 서울: 국어학회, pp.131~151.
 _____(2011), 『木簡에 보이는 古代國語 表記法』, 『口訣研究』 26, 서울: 口訣學會, pp.167~193.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 서울대출판부.
 _____(2005), 『국어학 10년의 앞날을 바라본다(?)』,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서울: 태학사, pp.15~27.
- 南豊鉉(1975), 『漢字借用 表記法의 發達』, 『國文學論集』 7·8, 서울: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pp.2~47.
 _____(1981), 『借字表記法研究』,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文化財廳·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2011), 『韓國 木簡字典』, 창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박진호(2008), 『향가 해독과 국어 문법사』, 『國語學』 51, 서울: 國語學會, pp.313~338.
 安秉禧(1987), 『語學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991~1082.
 尹善泰(2009), 『百濟와 新羅에서의 漢字漢文의 受容과 變容』,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소통』,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93~104.
- 李基文(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52, 서울: 震檀學會, pp.65~78.
 李秉根(1976), 『派生語形成과 i 逆行同化規則들』, 『震檀學報』 42, 서울: 震檀學會, pp.99~111.
 李炳鎬(2008), 『夫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木簡과 文字』 1, pp.49~91. 서울: 韓國木簡學會.
 李成市(2000), 『韓國 木簡研究의 現況과 咸安 城山山城 出土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서울: 서경문화사, pp.77~121.
 李丞宰(2001), 『古代 吏讀의 尊敬法 '-在[거]-'에 대하여』, 『語文研究』 112, 서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pp.53~70.
 _____(2008가), 『295번과 305번 木簡에 대한 管見』, 『백제목간』,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pp.58~61.
 _____(2008나), 『吏讀 解讀의 方法과 實際』, 『한국문화』 44,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241~267.
 _____(2009), 『木簡과 國語學』,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국립문화재연구소 40주년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창원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pp.111~127.
 _____(2011가), 『古代 木簡의 單位名詞 解讀』, 『동아시아 구전전통과 문자문화』, 서울: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pp.43~77.
 _____(2011나), 『彌勒寺址 木簡에서 찾은 古代語 數詞』, 『國語學』 62, 서울: 國語學會, pp.3~46.
 _____(2013),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의 해독』, 『한국문화』 61, (인쇄중),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鄭在永(2008), 『月城塚字 148號 木簡에 나타나는 吏讀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1, 서울: 韓國木簡學會, pp.93~110.
- Lee, SeungJae (2012), Some Korean/Japanese linguistic implications of Korean wooden tablet writing, *Proceedings of the 22nd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p.18. Tokyo: NINJAL.
- Lee, SeungJae (2013), A deciphering of two Silla poetry pieces inscribed on wooden tablets. (Unpublished).

Sino-graphic Orthography Applied in Silla and Baekje Writing Tablets

Lee, Seung-jae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writing practices of Silla 新羅 and Baekje 百濟 focusing on writing tablets 木簡, and then to discuss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applications of Sino-graphic orthography. Among existing texts including epigraphs and ancient manuscripts from Silla, Musul ojakbi 戊戌塲作碑 (578 CE) is the oldest extant text (A) following the word order of the Korean language and (B) containing representations of Korean grammatical forms.

If including Silla writing tablets under our consideration, however, the oldest of such example dates further back to the mid- 6th century text inscribed on Haman Seongsan sanseong wooden tablet no. 221. The text on this tablet not only applies (A) and (B) but also (C) Hunju eumjong 訓主音從 (a Sino-graphic practice of which a semantically adapted graph precedes a phonetically adapted graph) and Mareum cheomgi 末音添記 (final-sound addition), which demonstrates its value as the oldest text of the Korean language as well as the highest quality text of Idu 吏讀 writing. Sino-graphic orthography signified by (C) appears to be widely applied in Silla writing tablets from the mid- 6th century to the late 8th century.

On the contrary, application of (C) cannot be located in texts on Baekje writing tablets. Graphs on Silla writing tablets such as ‘只, 尸, 乙, 邑, 叱’ notating final-sound additions and ‘居, 伊, 史, 舍, 知’ representing phonetically adapted graphs do not appear on Baekje writing tablets. Accordingly, it may be suggested that regional names of Baekje listed in the geographic descriptions of *Samguk Sagi* 三國史記 were notated with

those graphs under the influence of Sino-graphic orthography employed in Unified Silla 統一新羅.

In Baekje writing tablets, graphs of phonetic adaptation were primarily used to notate words, whereas graphs of semantic adaptation were used mostly to write sentences. Sentences written in Baekje clearly show (A) Korean word order, but (B) representations of Korean grammatical forms are limited to ‘之, 也, 中, 以, 者’. These graphs coincide with the graphs found in early Idu texts from Silla. However, verifying how they were read in Baekje has proven to be difficult. This is yet another difference between Sino-graphic orthography applied in Baekje and Silla writing tablets.

Key Words : Sino-graphic orthography, Silla 新羅, Baekje 百濟, writing tablet 木簡, Idu 吏讀, Korean word order, Korean grammatical form, native Korean word, Hunju eumjong 訓主音從, Mareum cheomgi 末音添記